

10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23.43 (-12.50)	706.20 (-8.26)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2.880 (-0.017)	1344.15 (+4.35)

증권업 진출 특혜의혹... 생보사 자회사 승인도 빨간불

흔들리는 100년 은행

③ 우리금융 비은행 강화 위기

‘자본잠식 상태’인 포스증권 어음 발행에 초대형 IB 인가 면제 경영평가 3등급 이하 받으면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무산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뿐만 아니라 오랜 숙원이던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주 계열사란 장점을 활용해 초반 기초를 잡아야 하지만 역풍이 불까피해졌다. 또한 한국포스증권 인수와 동양생명·ABL생명 패키지 인수과정에서 특혜 의혹 등 잡음이 나오고 있어 임종룡 회장의 진퇴가 복잡해질 전망이다.

◆ 비은행 인수 과정 임종룡 압력 행사 의심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2일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정기검사 절차에 돌입했다. 정기 검사는 다음달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의 화두인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을 비롯해 우리금융의 증권업 진출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보험사 인수·합병(M&A) 관련 자본 적정성과, 인수 당시 상황, 경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5월 한국포스증권(포스증권)을 인수하고 우리종합금융과 합병, 우리투자증권을 설립해 지난 8월 출범했다. 다만 포스증권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인수에 대한 물음표가 나왔다.

포스증권은 온라인으로 펀드를 파는 소형 증권사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증권사이기 때문이다.

포스증권은 지난해 매출 139억6000만원, 영업손실 59억1000만원, 순손실 59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72억7000만원) 대비 순손실 폭은 19% 줄었지만 만성적자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순손실 규모는 360억원이다.

지난해 60억원에 가까운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포스증권의 결손금 규모는 지난 2022년 약 147억원에서 지난해 207억원까지 증가했다. 포스증권의 자본총계는 지난해 말 기준 485억원으로 포스증권 자본금(698억원)이 자본총계를 웃도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포스증권 인수를 통해 확보한 라이선스는 펀드 판매와 관련한 제한적 투자중개업과 투자매매업 인가 등이다. 경쟁 증권사가 보유 중인 집합투자업과 장내·외 파생상품 등과 관련한 라이선스는 없다. 즉, 반쪽짜리 증권사란 얘기다.

또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만 자체 신용을 통해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우리투자증권은 우리종금에 증권업을 추가하는 방식을 선택해 자기자본 1조 5000억원으로도 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대주주 적격성 등을 조사하는 초대형 IB 인가도 면제되면서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우투증권에 자기자본의 200%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넣었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발행어음 사업은 원래도 자기자본 200% 한도 내이기 때문에 규제가 아니다.

임 회장이 증권업 진출에 대한 부담



추석연휴 인천공항에 120만명 몰린다

1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이번 추석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 총여객 120만 4000명(일평균 20만 1000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해 역대 추석연휴 최다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이전 추석 연휴 최고치인 2017년의 18만7623명보다 7%가량 높다. 추석 연휴기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18일로 21만 3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뉴시스

1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질 경우 우투증권의 신규 사업 진출은 어려워진다. <3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isy2665@metroseoul.co.kr

은행장들 만난 이복현 오락가락 대출정책 “불편함 드러 송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가계대출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로 시장에서 혼란이 야기됐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가계대출을 엄정 관리하는 기조 자체는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 은행 은행장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관련 대책을 논했다. 이날 간담회와 브리핑은 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자율적 관리 방식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말을 꺼낸 후 처음 가지는 공식적인 자리로 이목을 끌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과 이에 따라 국민과 은행, 은행 창구 직원들에게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러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원회와의 불협화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내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간담회에서는 가계대출과 관련한 ‘은행의 자율적 관리’가 주요 논제로 떠올랐다.

이 원장은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달라 심사에 대해서는 은행장이 특정 기준을 세워서 운영하되, 일부 ‘그레이존(회색 지대)’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이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관리 편차를 언급하며 “공통 이슈가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 일률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정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출 관련 가이드라인이 도출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각 은행의 포트폴리오 현황이라든가 전체 리스크 관리 관련된 사항이 각기 달라 대출 실수요자 구분을 획일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신규 해운동맹 결성... 23.5조 투입해 바닷길 넓힌다

HMM ‘2030 중장기 전략’ 프리미엄어 얼라이언스 구축 친환경 설비에 60% 투자

“HMM을 떠올리면 친환경 해운 회사로 연상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내 대표 해운사 HMM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총 23조 5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HMM은 글로벌 주요 선사와 2025년 2월부터

협력기간을 5년으로 하는 신규 협력체제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결성했으며, 2030년까지 총 23조5000억원, 특히 전체 투자금액의 60%를 차지하는 14조 4000억원을 친환경 설비에 투자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HMM은 10일 여의도 파크원타워에 있는 HMM본사에서 ‘얼라이언스 결성 및 2030 중장기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경배 대표이사는 “2030년에는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해운업계 최대 화두인

환경 이슈를 해결하고 친환경 해운 회사로 연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MM은 기존 ‘디 얼라이언스’ 파트너인 ONE(일본), Yang Ming(대만)과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협력체인 프리미엄어 얼라이언스를 결성했다. 이와 동시에 세계 1위 선사인 MSC(스위스)와 북유럽 및 지중해 항로에서의 선복교환 협력에 최종 합의했다. MSC와의 협력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4년간이다.

HMM 관계자는 “프리미어 얼라이언

스 + MSC 협력체제를 통해 원양항로 네트워크 증대, 기항 항만·국가 확대, 운용 선복량 확대 등 타 협력그룹 대비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신규 협력 서비스 항로는 기존 ‘디 얼라이언스’ 체제의 26개에서 30개로 늘어난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유튜브 영상 제공 YouTube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오세훈 “주거 교육비 부담에 출산 망설이지 않게 지원할 것”
▲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신속 출범해야” /사진 뉴시스

▲ 野 ‘친일외교’ 조태열 장관 고발에 외교부 “대단히 유감” /사진 뉴시스
▲ 교육부-항공우주산업 맞손, 고졸인재 방산 분야 진출 돕는다



▲ 조국 대표 “민주당에 양보? 군수선거는 대선 아니냐” /사진 뉴시스
▲ 정책지원관 전원 전보 낸 서울시의회, 시행령 위반 논란

국립대 교수 1000명 늘리고, 의대여건 개선에 5조 이상 투입

(3년간)

(6년간)

교육부, 의학교육 투자 방안

단기적으로 기존시설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예타면제 신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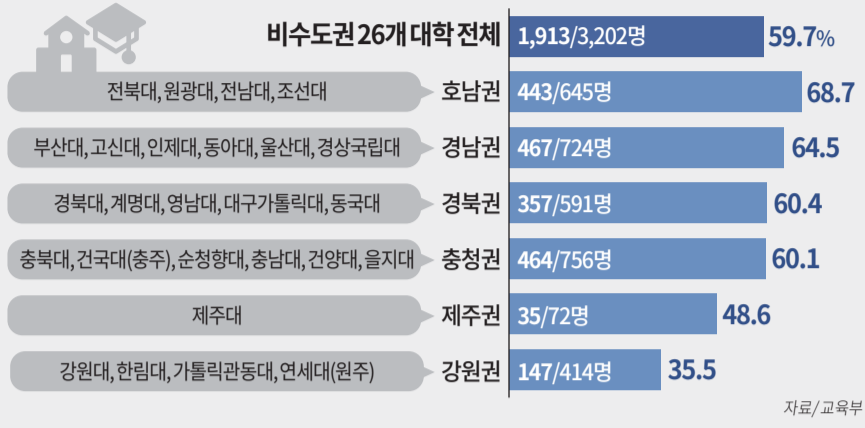
내후년까지 지역인재 61.8% 선발 지역전문의 96명 월수당 400만원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맞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을 투자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2026학년도 61.8%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 교수 채용 지원...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 개선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

2025학년도 권역별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가상해부테이블과 같은 첨단 기자재 지원도 병행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각 대학의 학생

증원규모 등 교육여건과 지역 의료여건 등을 고려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립대 의대 또한 자체적인 교수 확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대학이 필요 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한다. 또한,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는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8월 전국 38개 의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의과대학은 교당 연평균 54구의 교육용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한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61.8%까지 확대

의대생이 그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인재전형

특화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내 실습교육 확대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해 학생들이 학부 단계부터 지역의료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2024학년도 50%에서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역 정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2025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인사제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정주 여건 개선 등도 함께 검토한다.

이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여건 확충에 충분한 투자를 추진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과 수련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추석 차례상 부담 던다... 신선 농축산물 최대 50% 할인

'성수품 수급 점검' 민당정 협의회 배추 출하장려금 포기당 1000원 쌀값 안정위해 선제적 시장 격리

추석을 앞두고 민간·정부·여당이 성수품 중 배추의 가격이 높다고 보고 공급 확대와 출하장려금 상향을 지원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2만헥타르(ha)의 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10~11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후 추가 격리하는 등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희용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부 간사, 정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간측에서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달 25일에 열렸던 고위당정협의회의 후속조치로, 명절을 앞두고 조기에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당 내 목소리를 반영해 열렸다.

◆ 배추 물량 공급 확대·출하장려금 지원 민당정협의회 이후 열린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민·당·정은 추석을 대비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당·정은 추석 대표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경우 2024년산 출하량의 증가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배추는 가격이 다소 높다고 보고 정부가 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

도 현행 포기당 500원에서 포기당 900~10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추석 차례상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추석 3주 전부터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에 대해 자체 할인을 포함해 최대 50%까지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 쌀 공급과잉 우려에 조기 시장 격리

민·당·정은 올해 쌀 공급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수확기 쌀값을 조기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격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2만ha의

밭 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한다. 시장에서 격리할 물량은 사료용으로 처분되고 이미 공공비축미로 사기로 한 36만톤(t)을 더하면 총 46만톤의 햅쌀이 시장에서 격리된다.

이후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시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할 계획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격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민·당·정은 반복되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태홍 기자 pth285@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고창



고창음성

케이뱅크, 4100만주 유상증자... 5조원대 IPO 본격 추진

주중 증권신고서 제출 계획
공모희망가 9500~1만2000원
주당대 의존 등 실적 우려도



케이뱅크 본사 전경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최대 5조원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비교군인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1만원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실적 우려를 딛고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전날 4100만주의 신주를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증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조치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 기존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으로 회사의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이다.

◆시총 3조9611억~5조3억... 올해 최대 기업공개

앞서 케이뱅크는 기업공개(IPO)시

신주발행과 구주매출 비율을 5대 5로 설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8200만주를 공모할 예정이다.

공모희망가액은 9500~1만2000원이자. 공모희망가액을 상장 예정 주식수에 대입해보면 공모규모는 7790억~

9840억원으로 최대 1조원에 달한다.

신주를 포함한 케이뱅크의 총 발행 주식수는 총 4억1696만5151주로 공모희망가액을 적용하면 시가총액은 3조9611억~5조3억원이다. 이는 올해 최대의 기업공개 규모다.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HD현대마린솔루션(3조

7071억원), 시프트업(3조4815억원)과 비교해도 기업가치가 크다.

케이뱅크는 이번주 안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겠다는 목표다. 대표 주권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공동으로 맡았다.

◆시장상황에 따라 실적변동성 높아

일각에서는 케이뱅크의 실적과 관련한 우려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케이뱅크의 경영실적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의존이 큰 만큼 시장상황에 따라 실적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의 상반기 말 여신잔액은 15조67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7% 증가했다. 이는 대부분 정부주도 대출 갈아타기가 확대되면서 아파트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케이뱅크도 이에 따라 한달새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다섯 차례 인상했다.

아파트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한 케이뱅크의 성장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케이뱅크의 업비트 예치금 잔액도 줄고 있다. 케이뱅크의 2분기 예치금 잔액은 전분기 대비 40% 가량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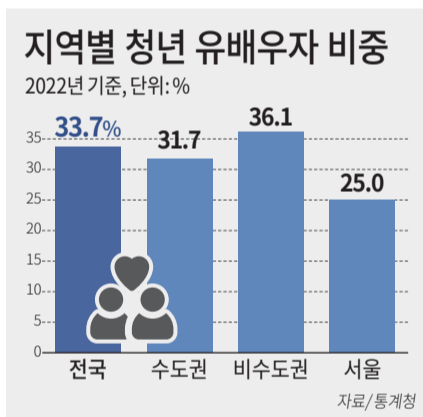
비교군으로 꼽히는 카카오뱅크의 주가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8월 상장 이후 9만4000원을 넘어섰던 카카오뱅크 주가는 이날 2만원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카카오 창업주의 사법리스크에 이어 노사갈등에 발목이 붙잡히면서 카카오뱅크 주가하락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케이뱅크는 상장 후 3년간 높은 여신 성장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가치는 5조4000억원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성장이 제한되면서 앞으로 인터넷은행의 주가 방향성은 소호(자영업자) 대출 성장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통계청, 2022년 청년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25~39세 청년 3명 중 2명 미혼... 절반은 '캥거루족'

유배우자 비율, 수도권 < 비수도권
여성 40%·남성 27.5%... 13%p 차



국내 25~39세 인구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1/3에 그쳤다. 서울 거주민의 경우, 이들 나이의 1/4만 배우자를 둔 것으로 집계되면서 전국 8개 주요 시 및 9개 도 중 유(有)배우자 비중이 가장 낮았다. 부산이 30%를 겨우 넘어서며 그 다음으로 낮았다. 여성의 경우, 배우자 있는 경우의 중위소득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연 200만 원가량 적었다.

통계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을 발표했다. 단, 사회통념상의 혼인기를 고려해 청년의 연령을 청년기본법상 19~34세와 달리 25~39세로 분류해 조사했다.

지난 2022년 기준 청년 중 배우자가 있는 비중은 33.7%로 전년 대비 2.4% 포인트(p) 내려왔다. 배우자가 없는 청년의 비중이 66.3%인 것이다. 성별로, 여자의 유배우자 비중이 40.4%로 남자(27.5%)에 비해 13%p 가까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후반(60.3%)에서 10명 중 6명이 배우자가 있었다. 30대 초

반은 34.2%, 20대 후반은 7.9%가 배우자를 뒀다. 비수도권의 유배우자 비율이 36.1%인 반면 수도권은 31.7%에 머물렀다.

17개 주요 시·도별로, 세종지역 25~39세의 51.4%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충남이 39.9%로 그 뒤를 이었고 경남(39.2%), 울산(38.9%), 강원(38.5%), 전남(38.5%), 제주(37.6%) 순으로 높았다.

서울이 25.0%에 그치며 가장 비중이 작았다. 또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모두 전국 평균(33.7%)을 밑돌았다. 낮은 순으로 서울에 이어 부산(30.9%), 대전(32.4%), 광주(32.7%), 대구(32.9%), 인천(33.5%)였다. 경기도는 36.6%였다.

남자는 배우자가 있는 청년의 중위소

득(5099만 원)이 배우자가 없는 청년(3429만 원)보다 많았다. 이에 반해 여자는 배우자가 있는 청년(2811만 원)의 중위소득이 배우자가 없는 청년(3013만 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청년의 주택소유 비중은 31.7%로 배우자가 없는 청년(10.2%)보다 압도적으로 컸다. 주택자산가액 1억5000만 원 이하 구간을 보면 배우자가 없는 청년이 배우자가 있는 청년보다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청년 중 부모와 동거하는 이른바 '캥거루족' 비중은 50.6%로 전년 대비 1.3%p 낮아졌다. 부모동거 비중은 여자(51.1%)와 남자(50.2%) 등 성별에 구애받지 않았다. 연령별 부모동거 비중은 20대 후반이 57.0%, 30대 초반은 46.3%, 30대 후반은 41.8%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티메프 파산 면했다 법원, 회생절차 개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가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티메프가 지난 7월 29일 자체 재정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단계라며 법원에 신청한 지 44일만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티메프의 회생절차를 맡을 관리인으로 조인철씨를 선정했다. 또, 티몬 류광진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를 제3자 관리인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조회 결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함께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 법인가를 거친 후 회생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티메프가 다음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권고했고 24일까지를 채권 신고기간으로 정했다. 티메프의 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는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 이 맡았다.

앞서 재판부는 티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구안을 마련할 수 있는 한 달의 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양사와 채권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30일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티메프의 이번 회생계획안이 재판부가 정한 기간 안에 마련된다면 최대 1년 6개월 안에 인가 결정이 날 전망이다. 반면,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빛나 기자 vitna@

금융당국 내달 경영실태평가... 사퇴-인허가 맞교환 전망도

» 1면 '증권업 진출 특혜...'서 계속

금융권 관계자는 "집합투자업과 장내·외 파생상품 등과 관련한 라이선스 취득이 어려워 많은 시간을 반쪽짜리 증권사로 영업을 해야 될 것"이라며 "우리투자증권의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임 회장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경영실태평가... 생보사 자회사 승인 변수

우리금융은 증권사뿐만 아니라 보험사 인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와 ABL생명보험주식회사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

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총 인수 금액은 1조5493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2조원보다 적은 돈으로 생명보험사를 확보했다.

하지만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영향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생보사의 자회사 승인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다음달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와 동시에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한다. 경영실태평가는 2~3년 마다 금융기관들의 경영부실위험을 파악하는 평가다.

이번 경영실태평가에서 우리금융이 3등급 이하를 받으면 현재 추진 중인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가 무산된다.

경영실태평가는 전체 5등급으로 되어 있고 우리금융은 현재 2등급을 받은 상태다.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금융지주사가 금융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특히 금감원 평가항목 중 올해부터 내부통제 비중이 5.3%에서 15%로 확대되면서 보험사 인수를 완료해야 하는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위기다.

또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금융의 생명보험사 인수 계약에 대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인허가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를 압박하는 동시에 금감원의 협조가 어렵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의 비은행 부문 진출을 위해 임 회장의 사퇴와 인허가 승인을 맞바꿀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달 28일 보험사 인수 계약체결 후 "조사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소통해 우리투자증권 라이선스 취득과 보험사 승인을 전제로 임종룡 회장이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며 "일각에선 사퇴 시점이 추석 전후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조병규 은행장이 올해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경영 안정성을 위해 그 이후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애플·화웨이, AI·폴더블폰 도전... 삼성, 할인·차별화로 방어

불 붙은 '스마트폰 삼국지'

애플, AI 혁신 앞세워 시장 주도
화웨이, AI·폴더블 결합 경쟁 격화

삼성, 갤럭시 Z시리즈 대폭 할인
더 얇아진 폴더블폰 출시 차별화

삼성전자에 이어 애플과 화웨이가 잇따라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인공지능(AI)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애플은 9일(현지시간) AI를 탑재한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했다. 같은날 화웨이는 화면을 두 번 접는 폴더블폰을 내놓으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앞서 AI 폰과 폴더블폰 신제품을 내놓은 삼성전자는 글로벌 1위 입지를 지키기 위해 할인 공세를 펼치는 등 방어전에 돌입했다.

◆아이폰 16, 한국 1차 출시

애플은 이날 선보인 아이폰 16 시리즈와 애플워치10, 에어팟4, 에어팟 맥스2 등의 핵심은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아이폰16 시리즈는 통화 녹음과 대화 내용 요약이 가능해진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아이폰16 시리즈는 처음부



삼성 갤럭시 AI 폴더블 폰 출시 기념 사전 예약 행사가 지난달 대구 신세계백화점에서 진행됐다. /뉴시스

터 AI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아이폰16은 오는 13일부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등 59개 이상에서 사전 주문할 수 있고 20일부터 매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한국이 새 아이폰 1차 출시 국가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AI 기능은 당장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출시될 아이폰 16에는 탑재가 되지 않으며 다음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베타 버전이 제공된다. 먼저

영어만 지원하며 내년에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더 많은 언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어 AI 제공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아, 내후년인 2026년에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번 접는 스마트폰

같은 날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도 두 번 접는(트리플 폴드) 스마트폰을 공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선다. 선주문 물량을 포함한 제품의 공식 판매 20일 시작된다. 신제품의 이름은 '메이트 X

T'로 선주문이 24시간 만에 200만건을 돌파하는 등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메이트XT'에 대한 사전 주문 건수가 300만건을 넘어섰다. 메이트XT는 세계 최초의 트리플폴드폰이다. 화면이 넓어 펼치면 태블릿 PC와 비슷한 크기가 된다.

화웨이는 지난 7일 낮 12시부터 공식 온라인몰에서 메이트XT에 대한 사전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1시간이 채 안돼 19만건이 넘는 주문이 이뤄진 데 이어 6시간 만에 100만건, 24시간 만에 200만건을 돌파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가격이 공개되기도 않은 시점에도 주문이 밀려들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폭발적으로 선주문이 늘었다는 것은 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극복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며 "올 초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한 애플에 맞서는 주요 경쟁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1위 삼성전자 방어전 펼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수성한 삼성전자는 방어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854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6.5%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5390만대를 출하하면서 점유율 18.9%로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애플은 4520만 출하량과 점유율 15.8%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의 뒤를 이었다.

하지만 최근 신제품 판매 부진을 겪은 삼성전자는 할인 공세로 점유율을 방어하고 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두 스마트폰 공개일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미국 현지에서 '디스커버 삼성 가을 할인'을 진행한다. 갤럭시 Z폴드6는 최대 1500달러(약 201만원), 갤럭시 Z플립6는 최대 800달러(107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난 7월 공개한 갤럭시 Z6 시리즈에 이어 이르면 10월 더 얇은 폴더블 폰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델은 외부 스크린은 6.5인치, 내부 스크린은 8인치로 전망된다. 이는 일반 바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울트라와 비슷하고, 플드6보다는 더 큰 수준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4800만 화소 카메라에 '가격 동결'... 韓, AI 지원은 아직 미정

'아이폰16' 13일 사전주문 시작

한국 1차 출시국 포함... AI는 아직 AI, 올해 美... 내년엔 일본·중국 적용
1200만 울트라와이드 등 카메라 성능↑
오픈형 에어팟 첫 노이즈 캔슬링 탑재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신작 '아이폰16' 시리즈를 공개했다. 애플은 처음으로 한국을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했다. 판매 가격은 인상하지 않았다.

애플은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파티노에 있는 애플파크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 '이제 새롭게 빛나다'(It's Glowtime)를 열고 아이폰 16 시리즈와 애플워치10, 에어팟4 등 신제품을 선보였다.

팀 쿡 애플CEO는 이날 "애플 인텔리전스와 혁신적인 기능을 위해



아이폰16 시리즈는 6.1인치형 기본 모델과 6.7인치형 플러스, 고급 모델인 6.3인치형 프로와 6.9인치형 프로맥스로 구성됐다. /뉴시스

근본부터 다르게 설계된 첫 아이폰을 소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 1차 출시국 확정... AI 도입 일정은 미정

한국은 처음으로 미국과 동일한 일정에 아이폰을 만나볼 수 있다. 아이폰 16 시리즈는 오는 13일부터 사전 주문이 시

작되며 20일 출시된다. 다만 애플의 첫 AI 기능으로 기대를 모았던 '애플 인텔리전스'는 제품 출시 이후 업데이트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서비스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르면 2026년에 한국어 버전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는 영어만, 내년에는 일본어 중국어 등 일부 언어만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16 시리즈는 ▲기본 모델(6.1인치) ▲플러스(6.7인치) ▲프로(6.3인치) ▲프로맥스(6.9인치) 등 4종으로 구성된다.

기본 모델과 플러스 사이즈는 이전 모델과 같지만, 프로와 프로맥스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더 커졌다. 아이폰16 프로맥스의 경우 아이폰 제품 중 가장 큰 크기다. 출고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광각 화소·촬영 센서 대폭 업그레이드

이번 아이폰 신작의 핵심은 카메라와 AI 기능 업그레이드다. 4800만 화소를 지원하는 광각 카메라가 탑재됐으며 접사 사진까지 촬영 가능한 1200만 화소의 새로운 울트라와이드 카메라가 탑재된다.

카메라는 초당 120 프레임의 4K 돌비 비전 동영상 촬영을 지원한다. 이는 아이폰 사상 최고 수준의 해상도와 프레임률의 조합으로 스마트폰으로는 최

초로 선보이는 성능이다.

이에 더해 강력한 5배 망원 카메라가 탑재돼 더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 슬로 모션 또는 비디오 모드로 초당 120 프레임의 4K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 앱에서 동영상 촬영본의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프로 라인업 모두 4개의 새로운 스튜디오급 마이크를 탑재하기 때문에 생생한 사운드를 녹음할 수 있고, 이제 비디오 촬영 시 공간 음향 캡처도 지원된다.

새롭게 도입된 기능은 카메라 컨트롤 기능이다. 기기 우측 하단에 장착된 카메라 컨트롤에는 버튼을 눌렀을 때 피드백을 전달하는 촉각 스위치, 살짝 누르는 제스처를 감지하는 고정밀 포스 센서, 터치 상호 작용을 지원하는 정전식 센서 등 기능이 다수 탑재된다.

/구남영 기자

산업연구원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판매 둔화"

'전기차·배터리 산업 이슈 보고서'
中 저가 공략 영향... 투자 조정 필요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터리 업계의 낙관적 전망에 따른 대규모 투자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전기차 판매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성장세가 다소 위축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국 배터리 전기차 기준 10.6%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 지난해 배터리 전기차 판매가 거의 늘지 않았고, 올해 상반기는 15.3%나 감소했다.

세계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나 하이브리드차는 지난해 각각 51%, 33.3% 증가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도 각각 58.7%, 17.1% 증가했다. 반면 한국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작년과 올해 상반기 각각 44.1%,

28.7%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은 물론 우리 시장에도 침투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전기차(BEV+PHEV) 생산의 세계 시장 비중은 68%를 넘어섰고, 중국 시장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도 21%가 넘는 전기차가 중국산이었다. 이미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비중은 적지만, 유럽 시장은 중국산 비중(BEV 기준)이 올 상반기 18% 상회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인도발 지중해 항로 강화... 대서양도 고려"

>> 1면 '신규 해운동맹 결성...서 계속'

이중 유럽 항로는 MSC와의 선복 교환 협력을 통해 기존 8개(북유럽 4, 지중해 4)에서 11개(북유럽 6, 지중해 5)로 대폭 강화된다.

HMM은 2025년부터 미주서안 12개, 미주동안 4개, 북유럽 6개, 지중해 5개, 중동 3개 등 총 30개 항로를 얼라이언스 협력을 통해 제공한다. 또 단독 운영 항로인 인도발 지중해 항로를 강화하고 인도발 북유럽 항로 및 남미동안 항로 등을 신설해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 선사와의 진출이 어려웠던 대서양 항로 참여까지 고려하는 등 글로벌 선사로서의 위상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HMM은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기항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주요 거점 항만 확대, 신규 직기항 서비스 등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북유럽 항로는 타 협력그룹(오션, 제미니)에서 제공하지 않는 부산·일본·베트남 직기항 서비스를 유일하게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SK하이닉스 르네상스의 원년을 만드는
ONE TEAM PLAY

SK하이닉스 4만여 구성원들은 힘을 합쳐
글로벌 No.1 메모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 **SK hynix**

국방·외교부 장관 불출석 통보... 대정부질문 5시간 연기

REAIM 행사 참석 위해 불참
오후 2시 예정서 19시·21시로 미뤄
野 “尹, 개원식 사상 초유 불참 이어
국회·국민 무시하는 반헌법적 태도”
與 “장관 참석 못하면 차관 대리 참석
양당 원내대표·국회의장 허락 얻어”



여야가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7시로 연기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본회의장 문이 굳게 잠겨 있다. /뉴스1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 행사 참여로 같은 날 열리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겠다고 알리자 야당이 이에 반발하며 대정부질문 시작 시간을 5시간 연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 장관과 조 장관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리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대정부질문엔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정부질문 질의자였던 정동영·한정애·이재정·박선원·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을 찾아 두 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사상 초유로 참석하지 않더니 그에 이어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노골적인 반헌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두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두 장관은 처음으로 대정부 질의에 나오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얼굴을 보

지 않겠다, 그것도 하루 전날 밤에 못나오겠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능멸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반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대정부질문에 대한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일

찍이 본회의를 통해서 결정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서 불출석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면 차관이 대리 참석한다”며 “국방, 외교부 장관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불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제가 파악해보면, 국방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90여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하기 어렵겠다고 알고 있고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서 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도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REAIM 고위급 회의는 국제사회 최대 화두인 인공지능(AI)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국방 AI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마련을 위한 회의로,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80여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40여개국 장관이 참여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경우,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3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

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양해 확인서를 외교부 측에 전달했고 이에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불출석과 관련해서도 “지난 6일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후, 국방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검토하여 회신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이후, 어제인 9일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국방부 측에 전달했고 직후 국민의힘도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대정부질문은 오후 2시에 시작되기로 했지만, 이를 5시간 늦춰 오후 7시에 열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장관의 불참이) 윤석열 정부 흐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연기하거나 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고, 다행히 그게 반영돼서 오늘 7시로 (대정부질문이) 조정됐다”며 “외교부 장관은 7시에 맞춰 출석하고, 국방부 장관은 9시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진성준 “정부 연금개혁, 세대 갈라치기...尹, 의료대란 사태 사과해야”

(민주당 정책위의장)

보험료 인상·연금 삭감 동시 추진
연금재정 안정 위해 국민 희생 강요
尹, 의료계 입장 수용 태도 보여야



행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세대 갈라치기’라고 규정했다. 이는 이번 연금개혁안에 도입한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본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과 연금 삭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에 대해 “향후 청년 세대에 대한 연금 삭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연금의 재정 수지가 악화되는 시기에 본격 작동시킬 거란

계획인데, 이 시기가 지금의 청년 세대가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하고 겹쳐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에 대해선 “차등 보험료율이 적용될 경우 중장년층의 대규모 실업이 우려된다”며 “(중장년층이) 50대에 퇴직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보험료율이 높으면 이를 똑같이 부담해야 될 기업이 고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도 “어떤 해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당장 13%를 내라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대한민국에서도 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계의 요구는 ▲대통령의 사과 ▲정책 책임자에 대한 문책 ▲의대 정원 논의 원전 재검토 세 가지로 집약되는 것 같다”며 “정부가 의료 대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사과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 분명하게 문책함으로써 의료계를 좀 달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를 우선 여·야·정 협의체로 불러 의료 대란 수습을 위한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졸속 정책으로 의료 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의대가 지난 9월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한 사실을 거론하며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가 그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리면 의료계와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나”라며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든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에 합리적인 근거를 대 의료계를 납득시키는 등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을 정부가 (의료계에)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고 설득해야지 2025년도 증원 의제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

尹 “추석연휴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 日 출입국 간소화”

권역응급의료센터 진찰료 3.5배 올려
한일정상회담으로 관계개선 성과 소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고,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이 연이어 알려지며, 추석 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걱정하는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히 병·의원을 동원해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공정한 보상’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내일(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4000개소 이상의 당직의

료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마지막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와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기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KLPGA

LADIES ASIAN TOUR SERIES



리디아고 Lydia Ko

이민지 Minjee Lee

패티 타와타나킷 Patty Tavatanakit

박연경 Hyunkyung Park

김효주 Hyo Joo Kim

윤이나 Ina Yoon

이다연 Dayeon Lee



Hana Financial Group Championship

모두가 하나되는 아시아 No.1 골프축제

2024.9.26(목) - 29(일)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주 관



방 송



장 소



기획/운영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핑크 |

차기 수협은행장 6파전… 내부 4명 vs 외부 2명

‘첫 여성 행장’ 강신숙 연임 도전
신학기·박양수 부행장 대항마로
양제신 전 하나은행장도 주목
노조, 내부지지로 외부인사 혐로

차기 수협은행장 선출을 위한 행장 후보추위원회(행추위)가 가동되면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숙원 사업인 금융지주전환을 피할 적임자를 뽑아야 하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수협은행의 중앙회 독립 후 첫 연임 성공 여부도 관심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 행추위는 오는 12일 최종 면접 대상자를 결정한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을 포함해 총 6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내부출신으로는 강 행장과 ▲신학기 수협은행 수석부행장 ▲박양수 수협은행 부행장 ▲김철환 전 수협은행 부행장이 이름을 올렸다. 외부 출신에는 양제신 전 하나은행 부행장과 강철승 전 중앙대 교수가 지원서를 접수했다.

강 행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취임 이후 순이익이 증가하는 등 실적을 올리면서다. 특히 신용카드와 외환사업을 강화하면서 비이자이익 확대에 공을 들였다. 은행장으로서 ‘합격점’을 받은 만큼 한 번 더 기회를 받을 것이라 관측이다.

걸림돌은 지주전환 성과다. 지난 2년간 눈에 띄는 M&A(인수합병)가 한 차례도 없었다. 올해 수협은행은 비은행 자회사 인수를 위해 은행장 직속인



(왼쪽 왼쪽부터) 강신숙 수협은행장, 신학기 수석부행장, 박양수 수협은행 부행장, (아랫줄 왼쪽부터) 김철환 전 수협은행 부행장, 양제신 전 하나은행 부행장, 강철승 전 중앙대학교 교수. /뉴시스

수합병 전담팀을 만들었다. 졸속 인수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는 방침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지지부진하던 평가가 나온다.

현재 강 행장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인물은 ‘2인자’로 불리는 신학기 수석 부행장이다. 신 부행장은 지난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했다. 이후 ▲인계동지점장 ▲고객지원부장 ▲리스크관리부장 ▲전략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수석 부행장직은 지난 2020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다.

박양수 부행장도 다크호스다. 박 부행장은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했다. 이후 ▲방화동지점장 ▲여의도지

점장 ▲수산금융부장 ▲강남기업금융본부 지점장직을 수행했다. 서울시내 유력 지점을 두루 거치면서 영업에 잔뼈가 굵었다는 평가다. 일선 현장에서 기량을 키웠다는 점에서 강 행장과 궤를 같이한다.

김철환 전 부행장은 올해 3번째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2020년과 2022년 유력 후보로 이름을 올렸지만, 매번 고배를 마셨다. 김 전 부행장은 1990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점장 ▲영업부장 ▲기업그룹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강 행장을 비롯한 4명 모두 수협 내부 출신인 만큼 박빙이란 분석이다.

외부출신의 경력도 화려하다. 강철승 전 중앙대 교수는 25년간 수산업계

에 몸담은 만큼 관련 현안에 밝고, 남다른 애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부행장과 마찬가지로 올해 3번째 도전이다.

양제신 전 하나은행 부행장도 눈여겨볼 만하다. 양 전 부행장은 1986년 한국투자금융을 시작으로 금융업계 처음 몸담았다. 이후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서 부사장과 대표직을 지냈다. 은행권은 물론 금융권 전반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손꼽힌다. 수협은행이 금융지주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최종 면접자 명단에 오를 경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시절의 경험을 강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 외부 인사의 경우 혐로가 예상된다. 지난달 수협중앙회 노동조합이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는 성명문을 발표하면서다. 노조는 금융당국의 보은성 인사를 겨냥하면서도 내부 출신 행장에 관한 지지도 아끼지 않았다. 은행장은 행추위원 5명 중 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행추위는 정부측 인사 3명과 중앙회가 선정한 2명으로 구성했다. 분수령으로 작용할 중앙회 측 표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 의견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 노조가 성명문을 발표하는 것은 관례적인 일이다. 외부인사의 역량이 필요한 시기라면 노조 또한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협은행 같은 특수은행은 내부 현안에 관한 이해도가 중요한 만큼 불리한 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카드 News

신한카드

실시간 상권분석 정보 열린데이터 광장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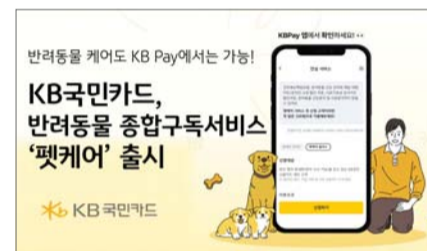
신한카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소비 정보를 제공한다.

◆ 데이터 무료 개방

신한카드는 실시간 상권 분석 데이터를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에 공유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주요 명소와 공공장소의 인구 현황부터 ▲대중교통 ▲도로 상황 ▲날씨 ▲문화행사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화이트스캔’과 함께 개발했다.

결제 데이터는 10분 단위로 집계한다. 음식 및 음료, 유통, 패션 및 뷰티, 의료 등 15종의 업종에 관한 실시간 결제금액 및 건수를 월별, 일별 추이로 제공한다.



KB국민카드

비대면 건강관리 등 반려동물 구독 서비스

KB국민카드가 반려동물을 위한 구독 서비스를 공개했다.

◆ 매달 할인 혜택 제공

KB국민카드는 10일 ‘헥토이노베이션’과 함께 ‘펫케어’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월 1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견주배상책임보험 ▲온오프라인 쇼핑쿠폰 ▲비대면 건강관리 ▲반려동물 사료·간식 성분 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펫케어 서비스는 KB페이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연말까지 첫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달간 1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첫 달 100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현대카드

19개 PLCC 파트너사 협업사례·기술 소개

현대카드가 상업자표시 신용카드(PLCC) 파트너사 최고 경영자를 한자리에 모았다.

◆ 데이터 사이언스 2000건 구축

현대카드는 언더스테이지에서 ‘2024 현대카드 PLCC 파트너사 협의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과 강대현 넥슨 대표, 박준모 무신사 대표 등을 비롯해 파트너사 19곳의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진행한 협업 사례와 기술을 소개했다. 이어 미래 행동과 이벤트 예측 기술을 적용한 개인화 마케팅 사례도 함께 발표했다.

/김정산 기자

‘찐강남’ 청담동, 10억 로또청약 떴다

‘청담르엘’ 19일 특별공급 시작
분상제 적용, 국평 최고 25.5억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신축 아파트가 나온다. 청담동의 경우 소규모의 고급 빌라 위주로 공급이 많았으나 의미있는 물량으로는 지난 2011년 입주한 청담자이 이후 무려 13년여 만이다. 분양가가 3.3㎡당 약 7200만원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단지 가운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시세와 비교하면 10억원 이상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소위 ‘로또청약’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청담 르엘’이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받는다.

청담 르엘은 지상 35층, 총 1261세대



서울 ‘청담르엘’ 조감도.

/홈페이지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으로 나오는 물량이 149세대다. 대형 평형은 대부분 조합원들이 가져가면서 전용면적 59㎡, 84㎡만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7200만원이다. 규제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

용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가 책정됐다.

평형별 분양가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도 전용 59㎡와 84㎡가 각각 20억 1980만원, 25억 4570만원이다.

인근에 지난 2011년 입주한 청담자

이의 경우 전용 82㎡가 지난 6월 32억 9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전용 89㎡는 38억원에 실거래가 신고됐다. 소형 평형으로는 전용 50㎡이 22억 8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청담자이의 분양가는 89㎡가 2011년 당시 13억원을 웃도는 등 고가였지만 청약경쟁률이 최고 248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청담 르엘은 10년 넘은 구축보다도 분양가가 수억원 이상 낮게 정해지면서 향후 시세차익이 최고 1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분양가는 상한제로 억누르고 있지만 땅값과 공사비 모두 급등하면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올해 초 ‘메이플자이’가 3.3㎡당 평균 6705만원으로 ‘래미안 원베일리’(5669만원)를 넘어선 이후 ‘래미안 원펜타스’ 6736만원, 청담 르엘 7200만원 등으로 매년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현대·대우건설 컨소,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수주

1조 3086억 규모, 19개동 신축
현대건설, 올 누적 수주 4조 돌파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8일 1조 3086억원 규모의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정비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일원에 지하 3층 ~ 지상 39

층, 19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3102세대와 오피스텔 144실,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 사하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사하초·중학교 등과도 인접해 있다.

/전지원 기자 jw13@

/김정산 기자

국제유가·정제마진 지속 하락 정유업계, 3분기 실적 '적신호'

경기위축 영향... 中 수요 위축
업계, SAF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
"비정유 부문 통해 수익성 강화"

최근 경기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정유업계의 3분기 실적이 어둡다. 지난 2분기 실적 부진을 겪은 데 이어 정제마진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지난 6일 기준 배럴당 73.43달러로 지난 8월 평균 77.60달러보다 약 4%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서부텍사스유(WTI) 가격 또한 지난 6일 기준 배럴당 67.67달러로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최저치로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브렌트유 가격도 전 거래일 대비 2.24% 급락한 71.06달러에 마감했다.

통상 유가 하락은 정유사들에 악재로 작용한다. 정유사는 원유 도입부터 제품판매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국제유가가 하락할 경우, 비축분 원유에 대한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유사 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인 정제마진도 약세를 벗어나지 못

해 정유사들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8월 마지막주 평균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전주대비 10% 하락한 배럴당 6.7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7월 평균 8.4달러를 기록했던 정제마진이 다시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정제마진은 석유 제품 판매가격에서 원유가·운임 등 비용을 빼고 정유사가 얻는 순수익이다. 통상 정제마진이 4~5달러일 때 손익분기점으로 판단한다.

미국의 높은 정제설비 가동률과 중국 수요 둔화로 휘발유·경유 중심으로 정제마진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분기에는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을 밑돌아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이크게 감소했다. SK이노베이션 석유사업은 2분기 영업이익 1442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분기 대비 75.6% 감소한 것이다. 에스오일과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도 정유사업 부문에서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정유사들은 3분기 여름 성수기를 맞아 실적 반등을 기대했으나, 국제유가와 정제마진이 하락하는 등 악재로 인해 실적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다. 3분기는 여름휴가 등으로 이동용 연료 수요가 늘어가는 시기로 2분기와 함께 정유업계의 성수기로 꼽혔으나, 기대

에 미치지 못해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정유사들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사 불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한 연료가 국제선 정기노선에 처음 투입된 데 이어, 정유사들은 SAF 생산량 확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에쓰오일은 인천국제공항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정기 운항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SAF를 주 1회 공급한다.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해 SAF 전용 생산시설 건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일본 ANA항공에서 사용되는 SAF를 일본 트레이딩회사인 마루베니를 통해 공급한다. SK이노베이션 또한 SK울산 콤플렉스(C LX)에 SAF 설비를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S칼텍스도 지난 2023년 9월부터 대한항공과 SAF 실증운항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정제마진의 하락세로 3분기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정유 부문의 성장을 통해 수익성을 다각화할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에너지솔루션 'RE+ 2024' 전시 부스 조감도 전면 / LG에너지솔루션

LG엔솔, 'JF2 셀' 적용 신제품 공개 (고용량 LFP 롱셀)

RE+ 2024 ESS 제품·기술력 소개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시장 내 주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신 ESS 제품 및 기술력을 선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북미 최대 에너지 전시회인 'RE+(Renewable Energy Plus) 2024'에 '미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다'라는 주제로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시장 중앙에 고용량 LFP 롱셀 'JF2 셀'이 적용된 컨테이너형 모듈 제품 'New Modularized Solutions(JF2 AC/DC LINK 5.1)'의 실제 제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오는 2025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생산 예정인 이 제품은 전력변환장치(PCS)가 내장된 AC 타입과 고객이 별도의 전력변환장치를 선택할 수 있는 DC 타입 중 선택이 가능하다. 3.4MWh(메가와트시)의 배터리 시스템에 1.7MWh 배터리 시스템을 연결하여 최대 5.1MWh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모듈식 제품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용도 등에 따라 맞춤형 제품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탑재된 JF2 셀은 이전 모델 대비 에너지 밀도가 약 21% 가량 향상되었고, 수냉식 형태로 최적의 시스템 성능

과 안전성을 보장한다. 제품이 모두 조립된 완성형으로 고객에게 전달돼 설치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것도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이 밖에도 ▲북미 네트워크 ▲전력망용 ▲상업용 ▲UPS(무정전 전원장치) ▲주택용 등으로 전시 부스를 구성해 핵심 제품들을 전시했다. 우선 북미 네트워크 존에서는 12년 이상 쌓아온 미국 현지 배터리 생산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ESS LFP 배터리의 내년 미국 생산 계획을 소개했다.

상업용 존에서는 학교, 공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전기 비용 절감을 돕고, 비상시 필요 전력을 제공하는 상업용 ESS 제품을 선보였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UPS(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도 전시했다. 주택용 존에서는 'enblock S+' 등을 전시했다. 이 제품은 모듈식으로 쌓는 NCM 기반의 'enblock S' ESS 배터리, 인버터와 자동 백업 장치 등을 통합한 올인원 솔루션이다.

LG에너지솔루션 ESS 사업부장 김형식 상무는 "현지 생산 역량 및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향후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북미 시장에서 앞선 시장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영상 제공

YouTube

완성차 5社, 임단협 막바지... 르노만 남아

르노코리아, 교섭일정도 확정 못 해
생산 차질시 신차효과 치명적 영향

국내 완성차 5사(현대차·기아·한국GM·KGM·르노코리아) 중 르노코리아만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현대차를 시작으로 한국GM, KGM, 기아까지 노사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을 선택한 가운데 르노코리아는 여전히 임단협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올해 4년 만에 선보인 신차 '그랑 콜레오스'를 출시하며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노사간 갈등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위기감은 확산될 수 있어 업계 관심이 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노조는 지난 6일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

에 대한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반대로 부결됐다. 총 185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1201명(64.8%)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와 관련 르노코리아 노조는 이번 주에 긴급 임시총대의원대회를 열어 현재 임단협 상황을 진단한다는 입장이다.

르노코리아 노사의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3000원 인상, 콜레오스 신차 출시 격려금 300만원 등이 담겼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향후 교섭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2차 잠정 합의안 도출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추석 연휴 전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르노코리아는 그동안 판매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9월 부터 판매에 돌입한 그랑 콜레오스의 생산량 확보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그랑 콜레오스

는 누적 사전 예약대수가 1만 7000여대를 넘어설 정도로 중형 SUV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만약 생산량 차질에 따른 인도 시기가 늦어질 경우 소비자 신뢰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르노코리아가 4년 만에 출시한 신차에 대한 시장 반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타협점을 찾고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2년 연속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한 만큼 올해도 무파업으로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단협 갈등으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소비자 신뢰 하락과 함께 이달 현상도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기아는 지난 9일 경기도 오호랜드 광명에서 열린 9차 본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성운 기자 ysw@

대한전선, '대한쿠웨이트' 공장 준공

이달 중순부터 광통신 케이블 생산

대한전선이 광통신 케이블의 생산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섰다.

대한전선은 쿠웨이트에서 '대한쿠웨이트(Taihan Kuwait)'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쿠웨이트 공장은 쿠웨이트시

티 남동쪽의 미나 압둘라 산업단지(Mina Abdulla Industry) 내 5000㎡(약 1500평)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공장에는 대한전선의 당진 케이블공장과 동일한 생산 설비와 시험 장비 등을 갖췄다.

대한쿠웨이트는 제품 인증이 마무리되는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대한전선이 지난 9일 쿠웨이트에서 '대한쿠웨이트(Taihan Kuwait)'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대한전선

최진식 "민간주도 성장, 필요불가결 가치"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중견기업계 간담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참석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미래 성장 전략으로서 민간주도 성장과 역동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가가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 대표에게 "정부가 천명하고 여당이 뒷받침 해 온 민간주도 성장과 역동경제의 필요불가결한 가치에 완전히 공감한다"며 "민간의 핵심인 기업의 도전을 촉진하는 정책변화를 통해 기업이 살아야만 민생의 저변으로서 안정적인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노동 유연성 및 노란봉투법, 중대해해처벌법 등 기업 경쟁력을 잠식하는 규제 환경을 전향적으로 개선

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투자와 도전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한 대표 취임 이후 최초로 열린 중견기업계 간담회에는 한 대표 외에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조시영 대창그룹 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생을 실효적으로 다독일 해법은 무엇보다 훌쩍해진 지갑을 살찌우는 것"이라면서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상향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중견기업이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자동세척 기능에 소음·냄새 해결 ‘음식물처리기’ 시장 경쟁 가속화

소비자 편의성 높여 시장 선도
스마트카라, 기술력으로 신뢰 확보
휴롬, 악취저감 등 반영 2세대 선포
삼성, 비스포크 더 제로 상표권 출원
LG, 지자체와 협력해 시장 진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로 ‘음식물 처리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중소·중견 기업들은 점유율 방어를 위해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대기업은 지자체와 협력하며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하루 발생량은 5만톤 이상이다. 그중 음식물 쓰레기는 약 1만 5000톤으로, 전체쓰레기 발생량의 약 28%를 차지한다.

현재 가정 내 음식물 처리기 보급률은 10% 미만이다. 다만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지자체에서 음식물처리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음식물 처리기 시장은 지난해 6000억원 규모에서 전년 대비 3배 이상 커졌다. 올해 시장 규모는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음식물처리기 시장을 점유하던 중소·중견 기업도 점유율 유지를 위해 활발하게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 업체인 스마트카라는 최근 15년간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신제품 ‘블레이드X’와 ‘스마트카라 400 프로2’를 출시했다. 이들 제품은 기존 음식물처리기의 취약점으로 꼽혔던 전기세, 소음, 냄새 문제를 개



스마트카라는 오는 30일까지 쿠킹 스튜디오 ‘라퀸 한남’에서 음식물처리기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스마트카라

선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스마트카라 400 프로 모델 기준 1회 전기료는 누진세 적용 기준 약 200원 내외다. 평균 소음은 약 26.4데시벨(dB)이다. 스마트카라 관계자는 “음식물처리기는 탈취력이나 편의성의 측면에서 높은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품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스마트카라는 우수한 제품력을 인정받아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현재 스마트카라는 2017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누적 판매량 30만대, 누적 매출액 2100억원을 돌파하며 업계 1위를 유지 중이다.

휴롬도 지난 5월 음식물처리기 2세대 제품을 출시했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복합 활성탄 필터를 사용해 악취를 줄이고 자동 세척 기능을 추가했다. 이에 출시 직후 약 2달간 판매량이 50% 이상 급증했다.

쿠쿠전자는 지난 4월 건조분쇄형 음식물처리기를 내놓았다. 밥솥 등 주방 가전을 개발하며 확보한 히팅 기술로 음식물의 수분을 99% 제거하고, 건조 과정에서 유해한 미생물을 99.9% 차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지난 6~7월 판매량은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도 음식물처리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LG전자는 지난 달 안산시와 자원순환 관련 협약을 맺고, 공동주택 40세대에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순차 보급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두달동안 가정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 쓰레기 감량 효과를 검증할 것”이라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제품을 늦어도 내년 초까지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2020년에 ‘더제로’라는 명칭의 음식물 처리기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 2022년에는 ‘비스포크 더 제로’라는 상표권을 추가로 출원하며 본격적인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SKT “과도한 불법 스팸, 발송 제한”

불법스팸 대응 전담 TF 신설

SK텔레콤은 전사 차원의 불법 스팸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불법 스팸 문자로 발생하는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SKT는 최근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해 유관부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사 TF를 출범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자체적인 스팸 억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SKT는 우선 송·수신 문자에 대해 필터링 정책 업데이트 시간을 종전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단축한다. 불법 스팸 발송번호 등록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는 등 필터링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달부터 본인인증 서비스 애플리

케이션(앱) PASS에서 제공 중인 ‘PASS 스팸 필터링’ 서비스 기능 강화·확산에 나선다. 기본 스팸 필터링 기능뿐 아니라 신고된 데이터 기반의 스팸일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추천하는 ‘키워드 추천’, 인공지능(AI) 스팸 의심 문자를 선별해 알려주는 ‘미끼 문자 AI 탐지 알림 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TF는 앞으로 불법 스팸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사이버 범죄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 간 공조 체계를 마련해 불법 스팸 분류 기준과 각사의 스팸 차단 솔루션의 상호 벤치마킹하는 등 협력을 통해 사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추석 대비 인구밀집 지역 1000곳 통신 점검

KT, 13~18일 네트워크 집중관리

KT가 추석 연휴 기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집중 관리 체계를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KT는 이 기간 중 1600여명의 네트워크 전문가를 전국 주요 통신 시설에 배치한다. 또 과전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위해 스마트 관제 시스템인 ‘싱글 뷰(Single View)’를 도입한다.

싱글 뷰는 수많은 네트워크 장비의 트래픽과 통계를 각각의 감시창으로 확인하던 기존 방식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니터링하도록 구현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장애 대응 신속성과 업무 편의성이 동시에 향상된다.

아울러 KT는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터미널, 공항, 쇼핑몰 등 전국 총 1000여 곳을 네트워크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기지국 증설과 함께 품질 점검을 완료했다.

/이혜민 기자

SK플래닛, 웹3 생태계 확장 나선다

오아시스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SK플래닛은 게임 특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오아시스(Oasys)와 웹3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생태계 성장과 공동 마케팅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SK플래닛의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인 업튼 스테이션(UPTN Station)은 오아시스 메인넷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협력 ▲비즈니스 파트너 연결 ▲고객 혜택 강화 마케팅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아시스에 출시되는 게임의 마케팅 활동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정인철 SK플래닛 팀장은 “고객들이 웹3 환경을 더욱 쉽게 경험하길 바란다”며 “오아시스의 콘텐츠 IP를 업튼 서비스를 통해 선보이며, 양사의 역량을 결합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배터리 물에 담가 화재 발생 줄인다”

SK·한화, ‘액침냉각 ESS 설명회’
냉각 플루이드로 화재 원천 차단
글로벌 인증 획득, 안전성 입증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틸리티 전문기업 SK엔머브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불타지 않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에 성공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친환경 ESS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그린에너지 기술을 확보해 ‘친환경 해양 솔루션 리더’가 되겠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SK엔머브는 10일 중구 한화빌딩에서 ‘액침냉각 ESS 기술’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양사는 리튬이온배터리 모듈에 냉각 플루이드를 채워 화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전기 추진선박에 공급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액침냉각 ESS는 배터리 셀(Cell) 하나가 발화해도 내부에서 차단되기에 다른 셀에 영향을 주지 않아 화재 예방이 가능하다.



10일 한화빌딩에서 진행된 ‘액침냉각 ESS’ 아카데미에서 SK엔머브 서상혁 e-Fluids B2B사업실장이 냉각 플루이드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기존에 ESS 온도를 낮추기 위한 공랭, 수냉식 방식과 달리 냉각 플루이드로 내부를 완전히 채운 방식은 외부로부터 먼지와 염분 등의 유입도 원천 차단해 내부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거했다.

기존 방식보다 우수한 안전성을 입증해 주요 모델 ‘SEAL’이 글로벌 인증 기관인 노르세베리타스(DNV), 한국선급(KR)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승현 에너지 시스템센터장은 “해양 선박용 ESS는 안전성이 필수 조건”이라며 “20년 이상

의 연구개발(R&D)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쌓아온 ESS 설계 능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제조 역량을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과충전 상태에서 배터리를 인위적으로 열폭주시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실험했다. 그 결과 불이 바로 소화됐고 주변 셀로 번지지 않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원형 셀 사이 냉각을 위한 전해액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 덕분에 효과적으로 냉각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해당 기술을 파워치형이나 캔형에서도 적용해 동일한 성능을 구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허 출원에도 나섰다. 셀의 구조를 변형하고 여러 단열 소재를 활용한 설계를 통해 파워치 셀에서도 같은 성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SK엔머브도 액침냉각 기술의 핵심 소재인 냉각 플루이드 기술을 소개했다. 플루이드는 액체와 기체의 중간 성질을 지닌 물질로 모듈 내부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고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U+tv 전용 플랫폼 ‘한눈에쇼핑’ 개편

LG유플러스가 17개 홈쇼핑 채널의 방송과 상품을 한데 모은 U+tv 전용 쇼핑 플랫폼 ‘한눈에쇼핑’을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IP)TV 서비스인 한눈에쇼핑은 2021년 말 출시돼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 300만 명을 돌파했다.

LG유플러스는 개편을 통해 리모컨 녹색 버튼을 누르면 바로 스마트폰으

로 연결할 수 있는 ‘모바일 주문’, 패션·미용·식품·가전 등 카테고리별 상품 검색, 할인 쿠폰 등 모든 할인 혜택을 적용한 최종 가격을 표시해주는 ‘한눈에 특가’ 등 기능을 추가했다.

특히 카테고리별 상품 검색 기능은 방영일자·리뷰·평점·가격 등 검색 조건을 넣을 수 있어 방송 예정 상품부터 지난 방송 상품까지 원하는 상품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



MUSEUM L

다양한 장르의 특별한 전시 **뮤지엄엘**

GRAND OPEN

오픈 기념 할인 & 이벤트 진행중

MONA LISA

모나리자 이머시브

2024.07.26 - 2025.07.25 뮤지엄엘 1관

ALBERTINA MUSEUM COLLECTION

ALEX KATZ

알렉스카츠

2024.07.26 - 2024.11.17 뮤지엄엘 2관

위대한 농구선수 75인 전

2024.07.26 - 2024.12.15 뮤지엄엘 3관



@museum.l

카메라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오픈특가,
카페할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뮤지엄엘 인스타그램> 링크로 연결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33 상상플랫폼 1층

국제 경제 불안에 국내증시 '휘청'... 투자자 이탈 가속화

코스피, 이달 들어 6% 가량 하락
투자자에탁금, 전월비 8% 줄어
글로벌 불확실성에 얽은 수급 가세
증권업계 "리스크관리 주력해야"

국내 증시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특히 국제 경제의 불안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투자심리 회복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코스피지수는 이달 들어 6%가량 하락하며 2500선에서 머물러 있다. 코스닥 지수 역시 8%가량 하락했다. 이같이 국내 증시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투자자에탁금은 51조2598억원으로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2535.93)보다 12.50포인트(0.49%) 내린 2523.43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14.46)보다 8.26포인트(1.16%) 하락한 706.20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스

한 달(59조4876억원) 전보다 8조원 넘게 감소했다. 투자자에탁금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매도한 뒤 계좌에 남겨둔 돈으로 증시 대기성 자금이다. 통상 투자자에탁금 감소는 투자자들이 증

시를 떠나는 신호로 거론된다. 특히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주식 살 돈을 빌리는 신용거래용자 잔고, 일명 '빚투'도 17조3575억원으로 10%가량 감소했다. 또 다른 대기성 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 잔고도 189조8434억원으로 지

난달(208조3371억원) 대비 18조원가량 줄었다. MMF는 만기가 짧은 국고채나 기업어음(CP) 등 단기물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비교적 좋은 수익률을 얻으면서도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기성 자금으로 여겨진다.

투자자들의 일평균 주식 거래대금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코스피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162억원으로 지난 1월(8조8749억원)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10조원대 아래로 내려앉았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글로벌 증시 조정과 미국 침체 우려가 본격화된 지난 7월 중순 이후 국내 증시 거래대금과 외국인 수급은 감소하고 있다"며 "세계 경기 불확실성에 더해 얽은 수급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증권업계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결국 상방이든 하방이든 불확실성 해소는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달려있다"며 "아직 연준과 시장의 괴리가 벌어져 있고, 미일 금리 행방에 따라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엔화로 사들인 해외 자산을 되파는 현상) 압력 등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크로 불안에 채권까지 초강세인 상황에서 주식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당분간 전술에 큰 변화를 줄 필요는 없고 제약, 담배, 통신, 유틸리티 등 방어주 위주로 비중을 유지하는 게 수익을 방어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엔비디아 '팔고' 반도체 ETF는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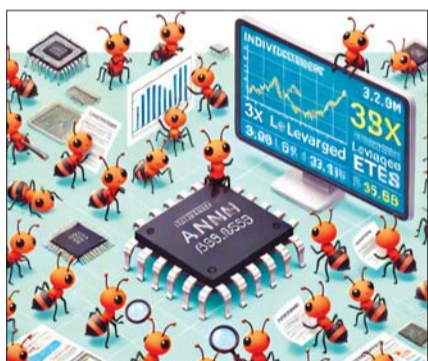
해외주식 Click

반도체 업종 혼조에 투심 엇갈려
저가매수 판단... 공격 투자 감행
레버리지·인버스 투자 선호도 높아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도 엔비디아를 처분하고 있다. 다만 반도체 지수 추종과 레버리지·인버스 투자에 대한 선호는 유지되면서 '불개미' 면모를 보였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9월 3~9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테일리 반도체 볼 3X' ETF로 약 1억3989만달러(1879억원)를 사들였다.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SCHWAB US DIVID END EQUITY(SCHD)' ETF의 순매수 규모가 1983만달러(266억원)인 것과 비교해 압도적인 규모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1년여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혼란을 야기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경우, 3일(현지시간) 전 거래일보다 7.75% 급락했으며, 이후 6일에도 4.52%



GhatGPT에 의해 생성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반도체·레버리지 관련 종목 등에 투자하는 모습' 이미지.

떨어졌다. 지난주에만 약 12.22%가 하락한 셈이다.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전망이 발표됐던 브로드컴을 비롯해, TSMC와 AMD, 퀄컴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이를 저가매수 구간으로 판단한 서학개미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엔비디아에 대한 투심은 꺾인 모습이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달 28일 실적 발표 후 최근 2주간 20.5% 급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서학개미들도 지지난주까지는 저가매수 구간이라는 판단으로 엔비디아를 집중매수했지만, 지난주부터는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다. 서학개미들은 동

일기간 엔비디아를 4억7312만달러(6356억원) 팔아치우면서 순매도세로 돌아섰다.

다만 반도체 업종이 혼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투심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주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 4위에는 ICE 반도체지수가 하락할 때 3배 수익을 얻는 '디렉시온 세미컨덕터 베퍼 3배' ETF가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에 반도체 상승장과 하락장에 대한 베팅이 동시에 들어간 것이다.

게다가 공격성이 높은 레버리지·인버스 투자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0위권 내에도 레버리지·인버스 관련 종목이 4개 종목 포함돼 있다.

지난주까지 비트코인의 하락세도 지속되면서 코인 관련 ETF에 대한 선호도 올랐다. 서학개미들은 지난주에 코인베이스인 'GRNTRSHR 2X' ETF와 비트코인 선물 레버리지 상품 '2X BIT COIN STRATEGY' ETF를 각각 1936만달러(260억원), 858만달러(115억원)씩 사들였다. 해당 ETF들 역시 레버리지 상품으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유지됐다. /신하은 기자 godhe@

KB증권 "금융주, 주식시장서 수익률 상회"

리서치본부 보고서 발간

KB증권이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금융주의 글로벌 주도주 부상 가능성을 진단했다.

KB증권 리서치본부의 지난 9일 발간한 보고서 '금융주, 20년 만의 주도주'에 따르면 최근 금융주들이 한국을 포함해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금융주가 20년 주기로 주식 시장의 주도주로 주목 받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1980년대에는 증권주, 2000년대에는 보험주가 각각 시장의 주도주로 떠올랐으며, 2020년대에도 금융주가 주도주로 기억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KB증권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힘입어 단기적으로도 금융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련된 불확실성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CET1 비율(보통주자본비율, 보통주로 조달되는 자본 비율)이자 위기 상황에서 금융사가 지닌 손실 흡수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 정책 효과로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9월 금융주 중심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10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12월 밸류업 지수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전망 등도 단기적인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하은 기자

키움증권, 중개형 ISA 잔고 1兆 돌파

지난해 말 대비 잔고 129% 늘어

키움증권의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고가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대비 잔고는 129% 증가했고, 고객 수는 112%가량 성장했다.

10일 금융투자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중개형ISA 가입자는 460만명, 가입금액은 15조 3000억원을 넘었다. 고객당 투자금액은 평균 332만 원으로 추정된다. 키움증권의 중개형ISA 고객당 평균 투자금액은 888만원으로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다.

중개형ISA는 국내 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인이 직접 운용해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중개형ISA 계좌 전용 특

관 추가연계과생결합사채(ELB)에는 매주 평균 10% 이상의 중개형ISA 신규 고객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며 "최근 금융상품 경쟁력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앞세워 중개형ISA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중개형ISA 신규 계좌 개설 및 500만원 이상 순증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토스 앱을 통해 중개형ISA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는 현금 1만원과 최대 200만원 현금 지급 이벤트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증권 중개형ISA 투자자들은 주식, ETF와 다양한 금융상품을 키움증권의 모바일 플랫폼 영웅문S#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며 "연말이 다가올수록 중개형ISA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4분기에는 중개형ISA 신규고객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실물이전 행사

사전·사후 이벤트 나누어 진행

미래에셋증권이 퇴직연금 실물이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앞두고, 고객들의 사전 신청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이 마련됐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면,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퇴직연금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타금융사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 보유 자산을 현금화함에 따른 중도해지 페널티 위험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는 주식이나 펀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전할 수 있어, 중도해지 페널티 없이 자유롭게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이벤트는 사전이벤트와 사후이벤트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째, 사전이벤트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미션 1, 미션 2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미션 1의 경우

퇴직연금 실물이전과 관련해 사전 상담을 완료한 모든 고객에게 3천원 상당의 GS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며, 미션 2는 실물이전 예약을 신청한 고객 전원에게 맥도날드 빅맥버거 세트를 증정한다.

둘째, 사후이벤트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후, 100만원 이상 실물이전 완료 및 이벤트 참여신청 고객에 한해 3만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사전이벤트는 10월14일까지 진행되며, 실물이전 완료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후이벤트는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장르·세계관·테마 유사” vs “분위기로 저작권 판단 못해”

〈넥슨〉

〈아이언메이스〉

저작권 분쟁 3차 변론 공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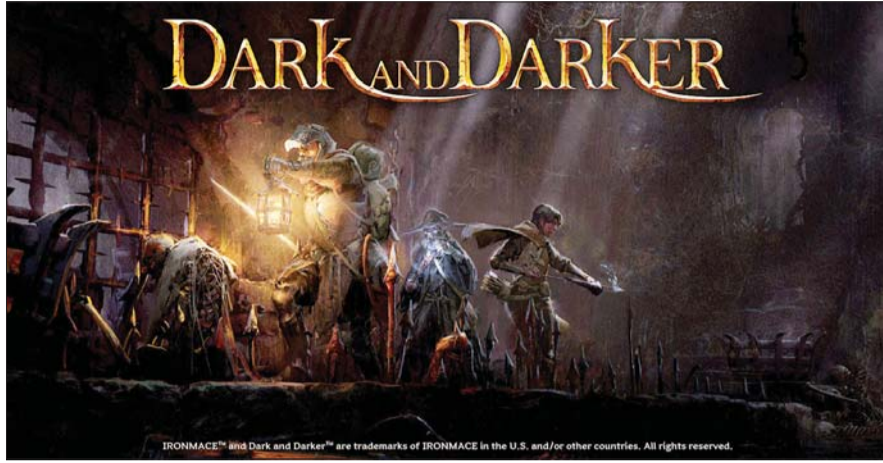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저작권 분쟁 관련한 3차 변론 공판이 진행됐다. 창작물에 대한 쟁점과 더불어 저작권 공표 범위 등에 관한 양측의 입장이 대립됐다.

10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분쟁 관련 3차 변론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제작 및 배급하는 익스트리션 RPG(역할 수행게임)로, 넥슨은 해당 게임이 자사가 내부에서 개발하다 중단된 ‘P3 프로젝트’를 아이언메이스가 무단으로 도용해 제작한 것이라고 보고, 아이언메이스를 고소한 바 있다.

지금까지 총 3차 변론이 진행됐다. 지난 5월 진행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1차 변론에서는 넥슨의 ‘P3 프로젝트’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게임의 유사성 문제가 쟁점에 섰다. 이어 7월 2차 변론이 진행되면서 게임 내 ‘탈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쟁점이 또 다시 화두에 올랐다.

이번 3차 변론에서 주를 이룬 핵심 쟁



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이미지.



넥슨 “P3 프로젝트 아이디어 빼내 회사 차리고 ‘관련게임 출시’가 문제”

아이언메이스 “예외적 창작자 인정 ‘객관적 인식 가능’ 상태 확인해야”

점 역시 게임 간 유사성이었다.

가장 먼저 저작권의 보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넥슨은 ‘P3 프로젝트’에 대한 창작성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넥슨은 자사가 개발 중단한 ‘P3프로젝

트’가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PVP)모드에서 플레이어 대 환경(PVE)이 더해진 장르, 중세를 바탕으로 한 세계관, 주요 테마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넥슨 대리인은 “이 같은 요소는 어떤 게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 P3 프로젝트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이 요소가 다크앤다커에도 다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대리인은 “한껏 한껏 스틸 컷의 어떤 분위기의 유사성으로만 저작권 침해 등 항목을 판단하게 되면 이 선행 게임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게임은 사실상 없게 되는 것이다”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어 논리를 이었다.

스티컷으로 하나하나 비교할 게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비교해야지, 넥슨 측의 주장대로라면 선행 게임(창의성이 인정받는 최초의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게임은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어 유사성에 대한 쟁점으로 넥슨 대리인은 장르, 세계관, 테마 등에 관계구체적인 요소를 영상으로 짚으며 양 게임 간의 유사성을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대리인은 P3 프로젝트와 유사성이 있는 다른 게임들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나 넥슨 대리인은 다시 “이는 부분적 요소에 불과하며, 다크앤다커는 상당 부분 많은 게임 요소가 유사하다”

고 재반박을 펼쳤다.

저작권 공시 요건에 대한 쟁점도 나왔다.

넥슨 대리인은 “P3 프로젝트’는 저작권 공표 예정이었던 프로젝트”라며 이를 넥슨 직원으로 있던 최주현 탐정이 아이디어를 빼내, 아이언메이스라는 회사를 차리고 ‘다크앤다커’ 게임을 출시한 배경이 문제라 되다고 주장했다.

피고 아이언메이스 측 대리인은 업무상 저작권 공시 요건에 관해 언급하며 “입법 취지를 봐야 한다”며 “창작자가 아닌 자를 예외적으로 창작자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시 기능을 통해서 법적 안정성을 피하고자 한 것이 법의 취지다. 공표 예정인 경우에 어떤 내심의 의사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 인식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늘 첫 번째 진행 사건 기준 정리하고 각 후속 사건에 대해서 별도 쟁점이 있는 부분을 따로 정리해 심리를 마무리할 것을 밝혔다. 최종 판결 선고는 판결 선고 10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외국인으로 다시 활기... “K-패션 모여있어 좋아”

현장르포

명동거리 가보니

외국인 관광객 코로나 이전의 62% 2022년 초 공실률 42%→2.4%로

“명동은 내가 가고 싶은 모든 가게가 모여 있어 자주 온다. K패션을 좋아하는데 ‘뉴뉴’부터 ‘에이랜드’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옷가게가 한곳에 모여 있는 점이 제일 좋다.”

10일 서울 명동에서 만난 외국인 교환 학생 에밀리(21)씨는 이 같이 말했다. K-패션과 뷰티에 관심이 많은 MZ세대의 젊은 외국인이 늘어나며 명동 상권 역시 트렌드를 반영해 변화하고 있다.

로드숍이 있던 자리에는 올리브영이, 지하에 있던 음반 가게는 고층 건물로 올라와 K메카(케이팝 굿즈숍)로 탈바꿈했고 이미스(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아디다스, MLB와 같은 브랜드숍



편집숍 ‘에이랜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전지원 기자

역시 눈에 띄게 늘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의 약 62%까지 회복한 가운데 전체 관광객 중 30세 이하 관광객은 35.6%를 차지했다.

프랑스에서 방문한 레아(27)씨는 “한국의 여성스러운 패션을 좋아해 옷을

사러 왔다”며 “프랑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스킨케어 제품도 좋고 근처 굿즈숍에서 한국 아이돌 멤버의 포토카드까지 구매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프랑스보다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며 “그래서 명동에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많을 것 같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초 명동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42.1%에 달했으나 지난해 말에는 19.7%로 절반이나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는 공실률이 1.8%까지 급감했다.

다만 2분기부터는 2.4%로 소폭 상승했다. 상가임대료(1㎡ 기준)도 1분기 14만1600원에서 2분기 14만2900원으로 소폭 올랐다.

박용학 한국부동산학회 명동분회장은 “코로나19 이후로 상권 공실률이 높아져 상권 회복을 위해 임대료를 코로나19 이전보다 50%가량 낮췄다”며 “임대료가 낮아진 대신 공실률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분회장은 “다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임대료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70%까지는 높아질 것”이라며 “그만큼 공실률도 지금보다는 올라가는 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환경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생활폐기물 관리 나서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및 과대포장을 예방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포장재, 음식물 등 명절 쓰레기 발생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배출 및 수거가 원활하지 않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기차역 등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리상황반’을 운영해 연휴 기간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관리한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쓰레기 수거일을 미리 알려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단독주택 주변 등에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추가로 비치해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주택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나 재활용 폐기물이 신속히 수거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민간 선별장’의 여유 공간 확보 및 ‘임시보관장’을 추가로 지정해 폐기물을 처리한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많이 버려지는 종이상자,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기 등의 분리배출 요령을 각 지자체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안내한다. 귀성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전광판을 활용해 분리배출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독 주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계도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김대환 기자 kdh@

추석 항공권·택배 소비자 피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공정위 항공권 구매 취소시 과도 위약금 등 연휴 전후 9~10월 피해구제 신청 증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이나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며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또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해외 여행객은 2021년 122만 명 수준에서 지난해 2271만명으로, 택배 물량은 같은 기간 36억3000만박스에서 45억박스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항공권은 17.8%, 택배는 17.7%를 차지한다.

주요 피해 유형을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의 경우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와 관련해서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온실가스 배출 6.24억t... 무탄소발전 확대로 전년비 4.4% ↓

환경부, '2023 온실가스 배출량' 부문별 전기·열생산 7.6% 감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영향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4%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원전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확대가 배출량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전 등 분야별 유관지표 등을 활용해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6억2420만톤(t)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전환(전기·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7.6%(1650만t) 감소하면서 제일 크게 줄었다. 환경부는 "전환 부문에서 발전량이 전년 대비 1% 감소했다"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



정은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소 발전인 원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증가한 것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산업 부문은 공정가스저감시설(반도체·디스플레이)의 확대와 석유화학과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경기둔화로 인한 생산 감소로 전년 대비

배출량이 3%(740만t) 감소했다. 건물 부문은 따뜻한 겨울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로 배출량이 전년 대비 7%(330만t) 감소했다.

수송 부문은 주행거리 감소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1%(100만t) 감소했다. 벼 재배면적이 감소한 농축수산 부

문과 매립량의 지속적인 감소가 발생한 폐기물 부문은 각 0.1%(1만t) 1.3%(20만t) 등 줄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배출량이 일시 증가했음에도, 2022년 이후 원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매해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이 감소하는 탈동조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

정은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심화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고려할 때 배출량을 더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감축의 속도가 다소 더딘 부문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전

했다.

한편,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산정 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온실가스 통계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해당 지침을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최초 산정 시점인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배출량이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통계 개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요 요인인 수소불화탄소(HFCs)에 대해,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생 냉매의 사용을 늘리는 등 감축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AI 시대, 쌀가공식품 발전방향 모색한다

농식품부, 2024 쌀가공품 품평회 추석 맞이 '쌀플러스 미식회' 진행 소비자 위한 최대 50% 할인 행사

과잉생산과 수요감소로 수급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는 쌀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쌀가공산업의 발전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함께 11일 경기 광명 테이크오텔에서 '2024 쌀플러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쌀가공산업의 발전방향 및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모색하는 한편 지난 7월 '2024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선정된 우수 브랜드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쌀플러스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제17회를 맞이한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2024 쌀플러스 제품(10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이어 수상 제품 중 성주 황금 꿀 참외떡(요푸트), 바삭집(씨제이제일제당), 명미당 제주오메기떡(우리식품) 등을 개발한 기업에서 수상제품의 개발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 푸드 2022) 2022 쌀 가공식품 산업대전이 개막한 7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관계자들이 우리쌀 가공품을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스토리를 발표하고 신제품 개발 전략 등을 공유한다.

2부는 주요 인사 특별강연과 토크콘서트로 구성된다. 먼저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회 회장이 '최신 푸드테크 트렌드와 쌀가공식품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두 번째 특강에서는 구글 마케팅 플랫폼의 공식 파트너사인 골든플래닛의 임유담 이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시대, 쌀가공식품 제조기업의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

토크콘서트도 마련돼 있다. 유통플랫폼 11번가, 배달의민족, GS리테일, 슬담하(전통주 구독 플랫폼)의 상품기획자(MD)가 참여해 쌀가공식품의 유통 플랫폼 판로개척 노하우를 제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플러스로 선정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규모 온·오프라인 판매 기획전인 '쌀플러스 미식회'가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추석을 맞아 기간 한정(9월 11~22일)으로 최대 5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추석 특별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명절 비용 부담을 줄이고 쌀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확산과 소비 증진을 꾀하고 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가공산업이 2022년 국내 매출액 8조 원 달성, 최근 5년간 수출액 2배 이상 증가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대표적인 수출 농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포럼이 쌀가공산업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장관 "흔들림 없는 원전정책 추진"

서울대 방문 '원자력 전공생과의 대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건설·운영, 소형모듈원전(SMR) 기반 구축, 원전 수출 등에 맞춰 전공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설계해 나가고 유망 연구에도 매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방문해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원자력 전공생과의 대화'에서 "탄소중립의 핵심 대안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공생 역할과 연구의 중요성도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성과를 계기로 원전 전공생들을 격려하고 원전 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했다.

산업부는 내년 원전생태계 육자지원을 500억원 증액하고, 유망 원전기업성

장지원 펀드 조성 예산 4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원전산업 지원예산을 2024년 7615억원에서 2025년 7923억원으로 확대했다.

안 장관은 '2050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원전산업지원특별법' 발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을 밝히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전공생들의 창의적인 대안과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 원자력분야 산학/국제협력 활성화 등 학계 건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학생들은 SMR 개발과 상용화, 원전수출 성과 확산 등 정책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진로 모색 방안 등을 토의했다. 나용수 원자핵공학과 학과장은 "외부 환경과 무관히 우수 원자력 인재를 일관되게 양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오는 2027년 전북고창에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농식품부, 과산·해남 이어 추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 대상 지자체에 전북 고창군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이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대규모 저온저장시설과 절임생산시설 조성 등을 통해 해당 권역에 안정적인 김치 원료(주로 배추) 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충북 괴산군과 전남 해남군에서 사업이 진행 중(2022~2025년)이다. 이번이 3번째로, 고창이 추가됐다. 구축 사업기

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다.

이번에 구축되는 김치원료공급단지는 배추 기준 1만 톤을 저장할 수 있다. 김치업체의 원료 저장시설 역할과 수급 안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절임배추를 하루 50톤 규모로 생산할 수 있어, 지역 배추 농가의 고정 판로 확보와 인근 중소 김치업체에 안정적인 절임배추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또 고창군은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운영을 통해 50여 명 정도의 신규 지역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지원분야는 ▲저온저장(예냉 포함) ▲가공(전처리)시설 및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 등의 설계비 ▲부지 조성비 ▲시설 건축 및 생산 설비·장비 등 구축 비용이다.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의 경우, 배추 절임시 발생하는 염수를 재활용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금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를 대비할 수 있다. 또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을 활용할 시 소금, 용수, 폐수발생 비용의 40%를 절감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과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 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에 개

정된 '환경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혜자 자격조회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담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규정'을 연말에 공고하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24654478 2166

제2회 2024년 글로벌디지털초월대상 연장 공고

-The Edge of ACx : AI·클라우드 비즈니스 성공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SW·ICT총연합회는 ABCDi 첨단기술을 상용화한
보다 많은 초월제품과 우수인재를 선정하고자 접수기한을 연장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조 풍 연

- 시상개요** | 2024년 ABCDi 기술혁신을 통해 상용화한 시장점유율 최고이며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글로벌 디지털 초월제품 및 인재를 선정
-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 관** | 한국SW·ICT총연합회, 전자신문사, 메트로경제
- 후 원** | 조달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정보화협의회, 공공발주자협의회

시상내역	시상 부문	표창	주관·후원기관 표창
	기업	12점	과기정통부장관상 2점 및 조달청장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한국재정정보원장상,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상, 전자신문사사장상, 한국SW·ICT총연합회장상 등
	개인	3점	

* 상격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자격요건	시상 부문	신청 대상 및 자격	주관·후원기관 표창
	기업	ABCDi 첨단 혁신기술을 상용화 하여 국내·외 시장점유율 1위나 수출 실적이 우수한 초월제품(제품, 서비스, 플랫폼)	장관상 최소 수공 기간 - 개인 3년 - 단체 2년
	개인	첨단 혁신기술을 연구개발 및 상용화하여 산업발전 및 국익 증진에 공헌한 개인	

* 대상자 추천 및 제출서류 등 세부 내용은 「제2회 2024 글로벌디지털초월대상 안내서」 참조
: 협회 홈페이지(www.kswict.or.kr)의 소식·알림/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신청안내** |
 - 접수기간 : 2024년 7월 19일 ~ 2024년 9월 20일 * 메일과 우편접수는 9월 20일 도착분까지만 접수 인정
 - 접수방법 : 메일(kswict@kswict.or.kr) 또는 우편(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08, 메타빌드연구소 빌딩 1층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국)

시 상 | 2024년 11월 25일 (컨퍼런스 행사 일정에 맞춤)

- 심사절차** |
 - 심사위원회 구성 ▶ 1차 AI 심사 ▶ 2차 전문가 심사 ▶ 최종 심사
 - 1차심사 | 제출된 서류의 공고 기준 해당 여부 등 AI심사
 - 2차심사 | 1차심사 통과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사
 - 최종심사 |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장관표창 대상자 확정

광주시, '민·군 공항 통합이전' 장기화... "전남도 반대 심해"

오는 2029년 새만금국제공항 개항 이전 못하면 서남권 관문 내줘야 전남도 "무안 군민 교두보 역할 해와"



9일 오전 광주 광산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민·군 통합공항 이전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스

광주 시민 첫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설명회가 열린 9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항 이전 장기화의 배경으로 전남도·무안군의 비협조와 정치권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강 시장은 서남권을 관통하는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까지 공항 이전을 결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광주시·광산구가 연 '민·군 통합공항 이전사업 주민 설명회'를 통해 "전남도가 뜨뜻미지근하다. (이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제가 시장이 되자마자 전남 합평과 공항 이전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전남도의 반대가 심했다"며 "그래서 대안을 냈던 것이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전남도와의 민·군 공항 통합 이전 합의

서명이었지만 이후 함흥차사다. 아무 소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항 이전 부지로 논의되고 있는 무안군에 대해서도 "김산 무안군수가 만나주라고 해도 만나주시지를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최근 국회의원과 민주당 광주시당에 쉽지 않지만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민간·군 공항 이전 장기

화에 에둘러 전남도·무안군에 서운한 속내를 비쳤지만 무안 주민 설득을 위한 소통방을 설치하는 등 신속한 통합공항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무안민간·군공항 통합이 연말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신공항 계획은 물 건너가고, 오는 2029년 개항하는 새만금국제공항에 서남권 관문을 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시장은 "새만금공항이 들어서고, 청주공항·대구공항 등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이전 기회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군공항 이전을 위해 무안 군민들을 설득하며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으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무안 군민들이 과거에는 반대 일색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찬성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이는 전남도가 지난해 5월 무안 국제공항으로 광주 민간·군 공항 동시 이전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도민 홍보와 설득을 통해 줄기차게 노력한 결과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광주시의 조치와 발표 내용을 보면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오는 12일에도 군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인 광주 서구에서 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린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장성군 도시브랜드 '성장장성' 선정

장성군이 1년여에 걸쳐 진행해 온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을 마무리 하고 '성장장성' 브랜드로 최종 선정됐다.

최종 디자인은 받침 'o'의 크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부분이 특징적이다. 변화와 성장의 의미를 울동감 있게 살렸다. 녹색은 장성의 자랑인 청정 자연을, 파란색 계열은 첨단 복합 산업도시로의 성장과 창조적 미래를 뜻한다.

/장성(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광양시 남부연습림 관사, 관리단체 지정

광양시는 오는 12일 관보게재를 통해 광양시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관리단체로 지정된다.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는 일제강점기 동경제국대학 남부연습림 내에 건립한 직원 관사다. 2동의 건물이 나란히 배치된 구조, 중북도를 중심으로 배치된 방, 방과 방 사이 문지방 윗부분의 환기창 등 건축 당시 주택의 공간 구성 형식을 엿볼 수 있어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장소로 알려져 있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대구시 대구마라톤대회 참가자 모집

2025대구마라톤대회가 내년 2월 23일(일) 개최된다. 마스터즈 부문 참가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2025년 1월 31일(금)까지 진행되며, 총 4만 명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기존 대회는 매년 4월 첫 번째 일요일에 열렸으나, 기후 온난화로 4월 초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내년 대회는 2월 네 번째 일요일로 변경됐다.

참가 신청은 대구마라톤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 종목은 풀코스, 하프, 10km, 5km로 나뉘며 엘리트 부문은 세계 최고 규모의 시상금(1위 16만 달러/약 2억 1000만원)을 유지하고, 마스터즈 부문 1위에게는 풀코스 15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세계 7대 마라톤 대회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

영양군 장구메기습지, 보호지역 지정

영양 장구메기습지가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석보면 포산리에 위치한 장구메기습지는 1970년대 계단식 논으로 이용되다가, 점차 논 면적이 감소하면서 전형적인 묵논습지 형태로 변한 곳이다. 해발 550m의 산정산부에 자연적으로 물이 모여 수량이 유지되는 지리적 희귀성으로 인해, 주변 야생생물이 상시적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며, 주요한 서식지 역할도 해왔다. 장구메기습지에는 458종의 야생생물이 확인되었으며, 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공동체형 돌봄시설인 'K보듬 600' 경북 1호점.

"아침부터 자정까지 아이 돌봐드려요" 'K보듬 6000' 경북 1호점 큰 호응

아파트 1층서 통합 돌봄시설 운영 영유아·초등학생 대상 3개 시설 설치 야간·공휴일·식사 제공 등에 '인기'

공동체형 돌봄 시설인 'K보듬 6000' 경북 1호점(경산시 하양읍)이 호응을 얻고 있다. K보듬 6000은 1년 365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저녁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며 이용료는 무료다. 아파트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돌봄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경북도의 특화 돌봄 사업이다.

경산 하양읍 우미린에코포레 아파트 1층에 위치한 K보듬 6000 경북 1호점의 경우 영유아를 위한 '하양에코어린아집'과 초등학생 대상 '하양에코포레마을돌봄터', '하양공동육아나눔터' 등 3개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경북 1호점은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평일 야간과 공휴일 운영, 식사 제공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가 절실한 만큼 'K보듬 6000' 경북 1호점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거창군, '먹거리 재단' 설립 용역보고회

공공성 확보로 경제 활성화 도모

경남 거창군은 지난 9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이병철 부군수, 간부 공무원, 용역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군 먹거리 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거창군 먹거리의 공공성 확보와 먹거리 관련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준비 중인 먹거리 재단 설립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사의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한 수정 및 보완을 위해 개최됐다.

거창군 먹거리 재단 설립은 작년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관 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선진정책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거창군에 접목하는 방안

을 모색하면서 시작했다.

설립을 준비 중인 거창군 먹거리 재단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거창푸드종합센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등 먹거리 관련 시설의 통합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중·소·고령농가 조직화를 통한 기획생산체계 구축, 거창푸드 인증 관리 및 지도, 민관협력형 먹거리보장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거창군은 먹거리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먹거리 관련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과 먹거리 연계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 내달부터 상수도 요금 7% 인상

내년·내후년에도 각각 8%씩 올라

부산시 상수도 요금이 10월 사용분부터 7% 인상된다. 또 내년과 2026년에도 각각 8%씩 인상된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본부는 2018년 이후 상수도 요금을 6년간 동결했지만, 최근 전기요금, 약품비 등 수도물 생산비용이 급증해 5년간 810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해 신설사업, 각종 노후 시설물 개량 등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최근 생산비용 급증으로 수도물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 비율인 요금현실화율이 지난해 기준 80.3%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의 경우 월평균 t당 60원씩, 일반용은 t당 106원씩, 옥탕용은 90원씩 인상되며, 공업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t당 10원씩 인상된다.

본부는 기존 누진제를 오는 10월부터 폐지기로 했다. 단일업종에 단일요금을 부과해 공평하고 간단한 요금체계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존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생활용수는 3단계, 공업용수는 2단계의 누진제를 적용해 왔다. /부산=이도식 기자

광주교육청, '주차장 개방' 등 공유문화 확산

교육진흥 전담팀 활동

광주교육청이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을 확대 추진하는 등 공유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진흥 전담팀(TF) 활동의 하나로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진흥 전담팀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역 균등 교육정

책과 주요 민원을 자치구와 협력해 논의하는 기구다.

지난해 3월 서구를 시작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주차장 개방을 추진해왔다. 현재 북구 3개교·서구 8개교·광산교 2개교 등 총 13개교에서 학교 주차장 311면을 지역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광주=양수영 기자

“원더스, 80년 노하우 담은 프로젝트… 놀라운 맛 보여줄 것”

던킨 30주년 ‘원더스’ 론칭

내일 ‘던킨 원더스 청담’ 오픈 원더넛·32레이어즈 등 준비 매장서 ‘테이스팅 노트’ 제공

11월 강남·부산에 원더스 적용 원더스 매장, 제품공급 기지 역할

SPC그룹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국내 브랜드 출범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프리미엄 콘셉트 프로젝트인 ‘원더스(Wonders)’를 론칭하고 브랜드 혁신에 나선다.

던킨은 10일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 김진호 비알코리아 던킨 사업본부장 등 회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도산대로에 새롭게 오픈 예정인 ‘던킨 원더스 청담’에서 ‘원더스’ 프로젝트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던킨 ‘원더스’는 브랜드 혁신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명이자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개발한 프리미엄 콘셉트의 제품과 카테고리, 매장 등을 지칭한다. ‘놀라움’을 뜻하는 이름처럼 더 새롭고, 남다르며, 고급스러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탄생했다.

원더스 콘셉트를 적용한 첫 플래그십 매장인 ‘던킨 원더스 청담’은 트렌디한



▲ 던킨 원더스 청담에 진열되어 있는 원더스 도넛. /신원선 기자
▶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이 서울 도산대로에 오픈 예정인 ‘던킨 원더스 청담’에서 오늘(10일) 오후 새로운 프리미엄 콘셉트 프로젝트인 ‘원더스(Wonders)’를 소개했다. /SPC

공간을 향유하고자 하는 2539세대를 메인 타깃으로 하여 젊고 트렌디한 상권인 도산대로에 오는 12일 오픈한다. 2층 규모에 전면을 통유리로 설계해 세련되고 개방감 있는 외관을 완성했으며, 2층에는 ‘도넛’을 소재로 한 공예 아트로 유명한 세계적인 팝아티스트 김재용 작가의 작품을 설치해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이날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은 “던킨 원더스는 SPC그룹이 80년 가까이 축적해온 최고 수준의 식품 R&D 역량과 AI 기술을 접목한 기술 혁신 프로젝트”라며 “던킨 원더스 청담을 시작으로

매장과 제품을 확장해나감에 고객들에게 놀라운 맛과 브랜드 혁신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던킨 원더스 청담은 오픈형 키친 ‘바이트 오브 원더’를 조성해 직접 만든 신선하고 특별한 도넛을 판매한다.

원더스 콘셉트를 적용한 ▲원더넛 ▲32레이어즈 ▲퍼프 도넛 3개 카테고리의 원더스 도넛 13종과 함께 AI를 활용해 개발한 ‘에이아이랩(AILAB)’ 도넛 3종, 미니츄이스티 도넛 콘셉트의 ‘미니츄’ 4종, 형형색색의 비주얼을 강조한 ‘스파클링 콜라타’, 수제 캔맥주 등 시그니처 메뉴를 만날 수 있다.



또한 매장 내에 원더스 도넛의 맛을 설명한 ‘테이스팅 노트’를 제공하고 취향에 따른 도넛을 추천해 주는 큐레이션 시트등을 비치해 고객들이 한층 더 깊이 있게 도넛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화된 매장 경험을 제공한다.

새롭게 탄생한 원더스 도넛은 ‘도넛 그 이상의 도넛’을 만들기 위한 혁신에서 탄생했다. 도우, 식감, 맛 등 모든 면에서 새로움을 꾀한다.

던킨은 ‘던킨 원더스 청담’을 시작으로 원더스 매장을 확대해 나간다. 오는 11월에는 기존 특화 매장으로 운영하던 던킨 강남라이브 매장과 던킨 부산역

라마다점에 원더스 콘셉트를 적용하고, 이후 지역별 거점 매장을 중심으로 허브 키친과 함께 원더스 매장을 오픈하여 인근 가맹점들과 연계하는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을 통해 전국적으로 ‘원더스 제품’을 확장할 방침이다.

현재 던킨은 지역별 거점 점포를 중심으로 인근 점포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협업과 연계 영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던킨은 수제 스타일 도넛 공급기자인 허브를 구축하고, 해당 허브에서 제조한 수제 스타일 도넛을 인근 점포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매장에 프리미엄 수제 스타일 도넛을 공급하고 있다.

김진호 던킨 사업본부장은 “원더스 매장은 제품 공급 기지 역할을 하게 되며, 검증된 제품을 가맹점포들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던킨 원더스 허브(Hub) 스포크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던킨은 비알코리아를 통해 1994년 던킨 이태원 1호점 개점을 시작으로 도넛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가맹점 개설에 들어갔다. 현재 66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프리미엄 제품을 운영하는 등 특화 매장을 지속 선보이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현대백, 친환경패키지 과일선물 조기완판

사과·애플망고 등 총 1만 세트 종이 완충재 ‘하니쿠션’ 사용

현대백화점은 추석 선물세트 판매기간(2024년 8월 9일~9월 16일) 과일 선물세트에 시범 도입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패키지가 1만 세트가 조기 완판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청과 부문에 우선 도입한 친환경 패키지는 기존 플라스틱 완충재를 종이 완충재 ‘하니쿠션’으로 대체한 게 특징이다. 해당 품목은 사과·배·사인머스켓·애플망고 난(蘭) 세트(15만~17만원), 사과·배·사인머스켓·애플망고 국(菊) 세트(12만5000~14만5000원), 사과·배·사



현대백화점 친환경 종이 패키지 대표 이미지. /현대백화점

인머스켓·애플망고정(情)세트(10만~11만5000원), 혼합사과·배·애플망고 정(情) 세트 등 총 4개 품목이다.

하니쿠션은 유기적이고 촘촘하게 짜인 벌집 패턴 모양으로 제작된 종이 완충재로, 패턴 사이의 공기층이 외부 충격을 완화해준다. 기존에는 배송 중 과일이 움직이거나 부딪혀 상처 나지 않도록 말랑한 플라스틱 소재의 ‘뽀캬’와 ‘SP’망으로 일일이 과일을 감싸 포장했다.

현대백화점은 종이 포장재를 활용한 친환경 패키지가 인기를 끌자 앞으로 명절 선물세트에 관련 상품 구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올 추석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고객 반응 등을 꼼꼼히 살펴 포장 품질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갈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홈플러스 ‘당당치킨’ 누적판매 1000만 팩

출시 770일만의 성과

계속되는 고물가 속 가성비 치킨 열풍이 다시 한번 불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 델리가 ‘당당치킨’, ‘고백스시’ 등 합리적 가격과 전문점 수준의 맛을 갖춘 차별화 메뉴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마트 델리의 정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홈플러스 델리의 ‘당당치킨’은 2022년 6월 출시 이후 이례적으로 마트 치킨 오픈런 열풍을 일으키며 출시 770일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 팩을 돌파했다.

당당치킨은 ‘당일조리·당일판매’ 원칙 아래 100% 국내산 냉장 계육만을 사

용한 것이 특징이다. 구매 후 눅눅해질 것에 대비해 수십 번의 염지·반숙·튀김 테스트도 거쳤다. 이를 통해 식어도, 에어프라이어에 데워도, 소스에 찍어 먹어도 ‘겉바속촉’의 치킨을 맛볼 수 있는 최적의 배합을 찾아냈다. 홈플러스만의 강력한 소싱 노하우도 주효했다. 원재료 대량 구매를 통해 상품 원가를 낮추는 등 제반 비용을 최소화했다.

이에 힘입어 치킨 매출도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당당치킨 출시 후 1년간 홈플러스 치킨 카테고리 매출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162% 증가한 후 현재까지 지속 성장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NS홈쇼핑 투데이 서비스 권역 확대

NS홈쇼핑이 9월부터 당일배송 ‘투데이 서비스’의 권역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벽배송 ‘짙짙배송’과 당일배송 ‘투데이 서비스’를 운영해 온 NS홈쇼핑이 9월부터 당일배송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9월 5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9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

NS홈쇼핑 ‘투데이 서비스’는 22년 7월 인천 연수구를 중심으로 한 국토부 주관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로 스타트업 ‘브이투브이’와의 협업관계를 통해 시작했다. /최빛나 기자

인천공항 2터미널에 637평 ‘신세계 존’

패션·시계 등 140여개 브랜드 입점

인천공항 2터미널 서편이 대규모 ‘신세계 존’으로 조성됐다.

신세계면세점은 10일 지난 7일과 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서편에 복합패션매장과 뷰티 매장을 차례로 오픈하며, 대규모의 ‘신세계 존(zone)’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라운지 앞에 위치한 신세계 존은 신세계의 MD 역량이 집약된 체험형 쇼핑 공간이다.

면세점 주 이용객인 개별 관광객(FIT) 선점을 위해 쇼핑뿐만 아니라 제품 시음과 시향 등 고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번 신규 매장은 총 2107㎡(637평) 규모로, 럭셔리와 수입 컨템포러리, K-브랜드까지 다양한 패션·뷰티 브랜드를 포함해 시계·주얼리·식품·완구 등 총 140여개 브랜드가 입점했다. /최빛나 기자

특히 여가나 비즈니스 등 다양한 여행 목적과 니즈에 맞춰 인천공항점 최초로 골프웨어 전용관을 구축, 디올 뷰티와 바프 아몬드, 전자제품 폴리오 안마기 등 인기 브랜드 팝업매장도 열어 상품 경쟁력을 더했다.

고객 동선에 맞춰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배치한 점도 눈길을 끈다. 매장 전면부에 공항 인기 품목인 아이웨어 브랜드가 위치해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액세서리-패션-숍인숍’으로 이어지는 매장 전체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MZ세대가 주목하는 브랜드 분크, 어그, 칼린 등도 입점했다.

이밖에 카카오프렌즈, 하리보, 오설록 등 라이프스타일 및 식음료 브랜드도 선보이며 다채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내달 10일 DDP 아트홀서 ‘컬리뷰티페스타’

뷰티컬리 ‘처음 만나는 럭셔리’ 슬로건

뷰티컬리의 큐레이션 감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가 처음 열린다.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는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컬리뷰티페스타 2024’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올 해 첫 행사인 컬리뷰티페스타는 ‘처음 만나는 럭셔리’라는 슬로건으로 고객들과 직접 만날 예정이다. 뷰티컬

리가 생각하는 럭셔리는 ‘비싼 가격의 명품’이 아닌 자신의 취향에 딱 맞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한다.

참여업체 또한 고객들에게 럭셔리한 뷰티 경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로 엄선했다. 행사에서는 브랜드 유산이 풍부한 ‘프레스티지’ 뷰티 브랜드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뷰티 브랜드 등 총 90개사를 만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K-미용기기 ‘돌풍’... 글로벌 뷰티시장 수출 ‘관목상대’

클래시스, 매출·영업익 ‘역대최대’
미용 의료기기 사업매출 비중 51%
레이저오펙 ‘필라스프리미엄’
올해 美시장 매출 100억 전망
에이피알, ‘하이 포커스샷’ 출시
마이크로 포커스 초음파 활용



지난 7월 태국 방콕에서 클래시스가 ‘클래시스 APAC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자사 주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미용기기 제품들이 ‘K뷰티’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클래시스

‘K미용기기’ 성장세가 K뷰티 돌풍의 신성장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10일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클래시스는 국내외 시장에서 K미용기기 대표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클래시스의 올해 상반기 누적매출액은 10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영업이익도 34% 늘어 577억원을 기록했다. 클래시스의 상반기 누적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역대 최대치로 나타난 가운데, 이중 미용 의료기기 사업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1%에 이른다. 특히 클래시스 미용 의료기기는 해외 수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미용 의료기기 사업의 누적

매출액은 507억원으로, 수출과 내수 매출액은 각각 376억원, 171억원이다. 이에 대해 클래시스는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신제품 ‘슈링크 유니버스(해외명: 울트라포머MPT)’와 ‘볼뉴머’의 판매가 호조를 이뤘다고 분석했다. 클래시에 따르면, 볼뉴머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출시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외 누적 판매량 1000대를 돌파했다. 출시 22개월 만에 국내에서 누적 판

매량 500대를 넘어선 데 이어 현재 해외 판매량 500대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다. 클래시스는 싱가포르, 태국, 브라질 등에 이어 미국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 클래시스는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볼뉴머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미국 판매를 본격화하기 위한 판매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클래시스는 지난 8월 미국 최대 규모를 갖춘 미용 의료제품 유통 전문 기업 카르테

사 에스테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올해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기업 경쟁력을 입증한 레이저오펙은 미국에서 미용부터 치료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레이저오펙은 피부 미용 및 질환 치료용 레이저 기기 전문 기업으로, 올해 3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필라스프리미엄’을 선보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필라스프리미엄은 레이저오펙이 개발한 세계 최초 티타늄사파이어를 이용한 311nm 고체 UV 레이저 제품인데, 주로 백반증, 건선, 아토피피부염 등 만성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레이저오펙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1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1% 증가했고,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2.9%에 달한다. 미국 시장에서의 약진과 함께 레이저오펙은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라구나힐스에 미국법인을 설립했고, 올해 북미 시장에서 100억원 이상의 연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뷰티테크기업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 제품군을 세분화하면서

‘홈뷰티 디바이스’ 강자로서 입지 굳히기에 집중한다. 지난 4일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디큐브 에이지알’에서 브랜드 최초로 고강도 집중초음파(HIFU) 기술을 적용한 ‘하이 포커스 샷’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의 핵심 기술은 ‘마이크로 포커스 초음파’를 활용한 것으로 피부의 4.5mm 깊이에 위치한 근막층에 작용한다. 근막층은 피부 속 근육층과 피하 지방층 사이의 얇은 섬유층으로, 노화 진행으로 근막층이 느슨해지면 피부 처짐과 주름 형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에이피알은 ‘하이 포커스 샷’에는 처진 피부 탄력 향상을 돕는 기능이 탑재됐다고 설명한다. 또 에이피알은 앞서 지난 5월에는 국내 최초 40.68MHz 고주파 홈뷰티 디바이스 ‘울트라 튠 40.68’을 내놨다. 고출력 고주파 기술을 홈뷰티 디바이스로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에이피알은 이들 제품을 이르면 오는 2025년 1분기 해외 시장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유튜브 영상 제공 mlee236@metroseoul.co.kr YouTube

GC녹십자 ‘알리글로’, 美 보험사 처방집 등재

수직통합채널 구축 ‘일단락’
美 내 사보험 가입자 80% 확보
전문약국 파트너십 확대 등 도모

GC녹십자의 일차 면역결핍증 치료제 ‘알리글로(ALYGLO)’가 미국 주요 보험사 3곳의 처방집(formulary)에 등재됐다. 환자 투여도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했다. GC녹십자는 시그나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블루크로스 블루스드 등 미국 내 주요 보험사 3곳에 알리글로의 처방집이 등재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익스프레스 스크립츠(ESI) 등 미국 내 3대 처방급여관리업체(PBM)를 포함한 6곳의 PBM·의약품구매대행사(GPO)와의 계약 체결도 완료했으며, 전문약국들과의 파트너십 체결도 마무리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미국식품의약국



일차 면역결핍증 치료제 ‘알리글로(ALYGLO)’ /GC녹십자

(FDA) 승인 이후 추진해 온 보험사, PBM, 전문약국, 유통사에 이르는 수직통합채널의 구축이 일단락됐다. GC녹십자는 6곳의 PBM·GPO 계약 및 3곳의 보험사 등재를 통해 당초 목표

로 한 미국 내 사보험 가입자의 80%를 확보하게 됐으며, 추후 당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전문약국과의 파트너십을 늘려가는 등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지난 7월 오창공장에서 초도 물량을 미국으로 수출한 데 이어 같은 달 말 미국 내 출시, 지난달 10일부터 일차 면역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알리글로의 투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3·4차의 후속 물량의 출하도 이뤄졌다. 회사는 알리글로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질 없는 생산과 배송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알리글로는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한 면역글로불린 혈액제제로, 선천성 면역 결핍증으로도 불리는 일차 면역결핍증에 사용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다. /이세경 기자 seilee@

동화약품, 짜 먹는 감기약 ‘하이투벤 시럽’

막대형 파우치 제형... 3종 구성

동화약품은 짜 먹는 감기약 ‘하이투벤 시럽’ 3종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 출시는 동화약품이 올해 초 하이투벤 브랜드를 인수한 후 처음이다. 동화약품은 기존 기존 캡슐 제형 감기약 4종, 나잘스프레이 3종에 이어 막대형 파우치 제형의 감기약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한다. 동화약품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애플과 향 ‘콜드시럽’, 라즈베리향 ‘코프시럽’, 사인머스켓향 ‘노즈시럽’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종합감기부터 목감기, 코감기 등 감기 증상에 따라 선택해 복용하면 된다는 것이 동화약품 측의 설



하이투벤 시럽 3종 /동화약품

명이다. 3종 모두 아세트아미노펜 특유의 쓴맛을 줄이는 ‘포접 화합물 기술’ 적용하고, 프리미엄 열대과일향을 배합해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포접 화합물 기술은 동화약품이 자체 개발해 현재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전국 스타필드 ‘명절 놀이터’로 변신

레고 팝업스토어·포토타임 이벤트 등

스타필드가 추석맞이 가족이 즐길 거운 ‘명절 놀이터’로 변신,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10일 밝혔다. 먼저, 스타필드 안성에는 오는 22일까지 레고로 만든 작은 도시가 펼쳐진다. 레고와 함께 레고 시티 제품들을 테마로 한 ‘LEGO CITY: 레고 시티 세상에서 무선조종 체험하기’ 팝업스토어를 열고, 나만의 자동차 만들기부터 디오라마 전시, 자동차 경주까지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스타필드 고양은 각종 장난감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영실업 플레타운’을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완구 전문기업 영실업의 ‘영풍 발랄 콩순이’, ‘시크릿쥬쥬’, ‘베이블레이드X’, ‘포봇’이 총집합해 인기 제품들을 선보이며 브랜드별로 구매 금액에 따라 다양한 상품도 증정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타임 이벤트도 열린다. 14일부터 18일까지 ‘NEW 영풍발랄 콩순이와 친구들’ 탈인형과함

께하는 포토타임 이벤트가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신규 캐릭터 스티커를 증정한다. 오는 9월 27일 새롭게 선보이는 NEW 영풍발랄 콩순이의 단짝친구 ‘티미’ 탈인형도 스타필드 고양에서 최초로 만나볼 수 있다. 21일과 22일에는 ‘시크릿쥬쥬’의 인기 캐릭터 핑크비주 탈인형과 함께하는 포토타임 이벤트가 이어진다. 스타필드 하남은 2021년부터 하남시와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진행해 온 ‘가치온 기획전 with 스타필드 하남’을 확대해 진행한다. 12일부터 15일까지 경기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40여 곳이 편집숍과 플라마켓을 운영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비온드, 크라프트지 용기로 ‘클린뷰티’ 실천

프로페셔널 디펜스 샴푸 리필

LG생활건강의 스킨 릴리프 뷰티 브랜드 ‘비온드’가 클린뷰티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비온드는 제품 용기를 종이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 디펜스 샴푸 리필’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종이 분리배출 지정 승인을 받은 것이 특징이다. 제품을 다 쓰고 남은 용기를 종이로 분리배출하면, 재생 용지인 ‘크라프트지’ 소재로 제작된 부분은 종이의 원료로, 일부 합성수지 필름 부분은 열에너지원으로 재활용 가능하다. 비온드에 따르면, 종이 재질 용기로 바꾼 뒤 플라스틱 사용량이 대폭 줄었



다. 비온드 프로페셔널 디펜스 샴푸 리필 제품은 펌프가 포함된 500ml 동일 용량의 본품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은 약 80% 감소했다. 무게 기준으로는 제품 1개당 70g의 플라스틱이 덜 사용된 것이며, 연간 약 2.5톤에서 3톤 가량의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비온드는 지난 2023년에도 국내 업계 최초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료로 만든 재활용 용기를 적용한 수분 크림을 출시한 바 있다. /이청하 기자

이동의 한 순간 · 물류의 매 흐름 AI시대의 FLOW전략

2024 물류 & 모빌리티 포럼

2024.9.25(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 | |
|--|--|
| ◎ 행사명 : 2024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 주제 : 이동의 한 순간 · 물류의 매 흐름, AI시대의 FLOW전략 |
| ◎ 일시 : 2024년 9월 25일(수) 14~17시 |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등록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
| ◎ 문의 : 2024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신한금융그룹-사랑의열매, 유산기부 활성화 MOU
 신한금융그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상속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부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왼쪽)이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SKT, 추석 연휴 특별 소통 상황실 운영
 SK텔레콤은 이번 추석 연휴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SKT는 추석 귀경일이 본격화되는 13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일평균 1300여 명의 자회사·관계사·협력사 전문인력을 배치해 통신 서비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SKT



하이트진로, '이슬라이브페스티벌' 성료
 하이트진로는 지난 7일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린 '2024 이슬라이브페스티벌'에 1만9000명이 방문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슬라이브 페스티벌은 세계 유일 소주 뮤직페스티벌로 매년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소주류 총 7500병(360ml), 맥주류 총 4만캔(355ml)을 판매하며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하이트진로



티웨이항공, 제주도 하레리 해안가 정화 활동
 티웨이항공이 지난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제주도에서 해양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의 사내 프리다이빙 동호회인 '프리다이버스'는 환경단체 플로빙코리아와 함께 제주도 서귀포시 하레리 해안가로 떠밀려온 페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과 같은 각종 해양쓰레기와 여름 휴가철 동안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티웨이항공



중앙그룹, '양중크루' 2기 활동 마무리
 중앙그룹 대학생 크리에이터 '양중크루' 2기가 지난 6일 해단식을 끝으로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중앙그룹과 양중크루를 주제로 제작한 영상 상영회와 함께 크루들의 두 달간의 활동 소감과 후기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앙그룹

삼성전자, 'SSTF' 개막... "AI와 함께 안전한 미래로"

돌란 가빛 교수 등 세계 석학 참여 "AI, 보안분야 혁신적 변화 가져올 것"

삼성전자는 10일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에서 '제8회 삼성 보안 기술 포럼(SSTF)'을 개최했다. SSTF는 학계·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해 보안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과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포럼에선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보안: 생성형 지능과 함께 안전한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전경훈 삼성전자 DX부문 최고 기술책임자(CTO)겸 삼성리서치장장은 환영사에서 "AI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보안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훈 삼성전자 DX부문 CTO겸 삼성리서치장 장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번 포럼에선 AI와 보안기술을 융합해 미래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삼성전자의 비전과 도전도 소개했다. 김태수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시큐리티&프라이버시티팀 상무는 기조강연을 통해 생성형 AI 시대에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전과 기회에 관한 견해를 공유했다.

또 최근 미국 정부에서 주최한 AI 보안기술 경진대회 'AI 사이버 챌린지'(AIxCC)에서 선보인 AI 보안 시스템 개발 과정과 성과를 발표했다. 이어 브랜든 돌란 가빛 미국 뉴욕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윤인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박상돈 포항공대(포스텍)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 보안기술 분야 석학들의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돌란 가빛 교수는 AI 활용이 취약점 탐지 등에 효과적이나 새로운 위협 요소도 존재한다고 밝혔고, 윤인수 교수는 해킹을 알고 대비하는 안전한 세상과 AI가 사이버 보안의 미래에 가져올 변화를 설명했다. 박상돈 교수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CJ그룹, 협력사 결제대금 5800억 조기 지급

역대 최대 규모 수준 조기집행 3700곳 혜택 전망... 지난해 3배

CJ그룹(회장 이재현·사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약 5800억원의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에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CJ대한통운, CJ올리브영 등 5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대금 규모별로는 CJ올리브영 3400억원, C



J제일제당 약 1260억원, CJ대한통운 약 870억원을 각각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CJ는 올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 강화를 위해 조기집행 금액을 역대 최대 규모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는 중소기업도 지난 해보다 약 3배 증가한 3700여 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CJ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CJ 제일제당은 경쟁력 있는 협력사를 발굴해 필요자금 및 역량, 판로 등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즐거움 동행'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기아, 인도 자동차시장 브랜드 만족도 1위 달성

인도자동차딜러연합회 발표 시승·응대·관리 등 고평가

기아가 글로벌 3위 자동차 시장으로 급부상한 인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아는 인도자동차딜러연합회(FADA)가 3일(현지시각) 발표한 고객경험지수 조사에서 일반 브랜드 부문 종합 1위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인도시장에서 고객들이 가장 만족하는 브랜드로 선정된 것이다.

인도자동차딜러연합회는 인도내 약 1만5000개 딜러사가 가입되어 있는 공신력 있는 단체로, 인도 정부 및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해 다양한 시장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객경험지수 조사는 ▲판매 경험 ▲서비스 경험 ▲상품 경험의 3개 분야에서 약 8000명의 고객이 응답했다.

기아는 3개 분야 중 판매 경험과 서비스 경험 2개 분야에서 각각 1위를 기록해 전체 12개 일반 브랜드 중 종합 1위를 달성했다.

특히 기아는 판매 경험 분야의 고객 시승 경험, 판매 직원의 고객 응대, 고객 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서비스 경험 분야에서는 차량 수리, 서비스 센터 운영 등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아 인도법인 관계자는 "법인 설립 이래 고객중심경영의 방향성을 기반으로 모든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CJ대한통운 ISO 37301 인증 연장

CJ대한통운이 한국준법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제 표준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ISO 37301은 기업의 준법경영 체계와 투명한 지배구조, 윤리경영 등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 인증이다

CJ대한통운은 2021년 물류업계 최초로 해당 인증을 취득한 후, 이번에도 갱신 심사에 성공하며 인증을 연장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삼립, 상생펀드 확대... 280억 규모 운용

80억 증액... 협력사 경영활동 지원

삼립이 신한은행과 협력사의 경영활동과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상생펀드를 28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삼립은 지난 2016년부터 신한은행과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200억원의 상생펀드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80억원을 증액해 총 280억원으로 규

모를 확대해 협력기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삼립은 상생펀드를 바탕으로 '협력기업 상생협약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기업은 이를 통해 시중 대출 금리보다 약 1.6% 포인트 가량 낮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협력업체들을 위해 거래 대금을 기존 15일 지급에서 12일로 3일 앞당겨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김정각 KSFC 사장 'BBP' 챌린지 참여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사진)이 10일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BBP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으로 부터 지명을 받고 릴레이에 참여했다.

김 사장은 "한국증권금융 임직원과 함께 1회용품 대신 텀버러 사용을 실천하는 등 '바이바이 플라스틱(BBP)'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사장은 다음 주자로 황성업 신영증권 사장을 지목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김건호 삼육대 박물관 명예관장(왼쪽)이 삼육대 박물관에 국가유산 4점을 기증하고, 제해중 총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육대

다송 김건호 선생 국가유산 4점 기증

삼육대학교는 박물관 명예관장인 다송 김건호 선생이 삼육대 박물관에 국가유산 4점을 기증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증된 국가유산은 ▲19세기 청화백자진사포도문호 1점 ▲12세기 흑백삼강청자국화문잔 및 잔대 2점 ▲18세기 청화백자용문호 1점 등 총 4점으로, 감정가는 약 4000만원에 이른다. /이현진 기자 ihj@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다자금 융과장 이재우

◆중앙대 ▲심리서비스대학원장 김기연

부음

▲김용희씨 별세, 김치관씨 부인상, 김윤호(전 서울문화사 부국장)·김미경(국제타리클럽 한국지부 부회장)·김미선·김경희씨 모친상 = 9일 오후 7시5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12일. 02-2258-5973

▲정용국씨 별세, 정은호(오비맥주 대외정책팀장)·정상호(대동여중 교사)씨 부친상 = 9일 오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2일. 02-2258-5940

▲김영례씨 별세, 송병태(전 광주 광산구청장)씨 장모상·정희성(연합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 기자)씨 외조모상 = 10일 오전 9시 30분,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12일. 062-951-1004

www.snmiles.com



S & Miles

기업출장, 산업시찰, 전시회 여행은 S & Miles에게 물어보세요!

철강금속신문의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 기업전문여행사 S&Miles 여행사에서 B2B, B2C 맞춤형 여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QR코드 스캔
카카오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주요 서비스

산업시찰, 전시박람회, 컨퍼런스 등 주요 국제행사 참여/참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In & Out bound)

해외 파트너사 개발, 고객사 행사, 임직원 포상 여행 등 기업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기업 출장 관련 Total Solution 제공

임직원 여행 서비스 지원

2024 박람회 행사 일정

NO	행사명	일시	장소
1	호치민 기계 전시회 METALEX VIETNAM 2024	10월 2일 ~ 10월 4일	베트남 / 호치민
2	슈튜트카르트 생산 및 조립 기술 박람회 MOTEK	10월 8일 ~ 10월 11일	독일 / 슈튜트카르트
3	올랜도 국제 기계 전시회 North America's Largest Metal Forming	10월 15일 ~ 10월 17일	미국 / 올랜도
4	하노버 판금 가공 전시회 EuroBLECH 2024	10월 22일 ~ 10월 25일	독일 / 하노버
5	도쿄 공작 기계 전시회 JIMTOF 2024	11월 5일 ~ 11월 10일	일본 / 도쿄
6	라스베이가스 자동차부품 박람회 AAPEX 2024	11월 5일 ~ 11월 7일	미국 / 라스베이가스
7	방콕 국제 기계 전시회 METALEX 2024	11월 20일 ~ 11월 23일	태국 / 방콕
8	상해 자동차 부품 박람회 Automechanika Shanghai 2024	12월 2일 ~ 12월 5일	중국 / 상해
9	뒤셀도르프 밸브 전시회 Valve World Expo 2024	12월 3일 ~ 12월 5일	독일 / 뒤셀도르프
10	델리 건설 기계 산업전시회 CONEXPO INDIA 2024	12월 11일 ~ 12월 14일	인도 / 델리



하노버 판금 가공 전시회 · EuroBLECH 2024
10월 22일 ~ 10월 25일

뒤셀도르프 밸브 전시회 · Valve World Expo 2024
12월 03일 ~ 12월 05일



“북한 경제개방 가능성... 법제도 미리 준비”

김형남 다음투자증권 상임감사
‘북한의 금융 법제도 연구’ 논문 발표
경제발전에 필요한 ‘금융 제도’ 강조



김형남
다음투자증권 상임감사

“우리(한국)가 먼저 금융 법제도를 잘 정비해 줘야, 북한이 자본시장을 형성하려 할 때 우리가 그 경험을 전해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30여 년 동안 봉직한 뒤, 현재도 금융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형남 다음투자증권 상임감사(국민대 법학박사, 북한·통일법전공)가 ‘북한의 금융 법제도 연구’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10일 김 박사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이 자본시장을 연다면, 제한적이겠지만 특정 지역을 개방해 외국인이나 일부 북한 주민들이라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자본시장 형성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북한에는 유가 시장이 없지만, ‘경제 특구’를 지정해 해당 지역을 한정적으로 개방하고 외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합작법’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논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 법제 정비 사례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뤘다. 그는 “이 두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개혁·개방에 성공한 나라들이기에 참고 사례로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베트남은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겪었음에도 주요 금융 법제를 정비해 증권 시장을 성공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사례로 꼽힌다. 베트남은 1993년 증권시장 개장을 준비하면서 1996년 11월 20일부터 1998년 11월 20일까지 한국거래소(KRX)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베트남에는 ▲호치민 ▲하노이 ▲업컴(Upcom)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코스피(KOSPI), 코넥스(KONEX)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 박사는 “북한은 세습체제가 공고해 체제유지가 최우선 가치며, 주민 경제 문제는 후순위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번에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

라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나마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거래할 수 있는 광물 자원이 많고, 금융 시장이 전무해 보이지만 암시장은 존재한다”며 “이런 자원과 시장을 활성화하여 정상 궤도에 올리고, 주민들이 자분을 형성해 기업 자금 조달까지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박사는 금융과 경제 발전에 있어 ‘법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베트남 자본시장 설립을 지원했던 것처럼, 언젠가 북한에도 우리가 자본시장 구축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금융사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얻은 경험이 있는 만큼, 북한이 자본시장을 형성할 때 한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입법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적용할 때 ‘법 안정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남북한 금융 제도의 공동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CEO 리스크’와 우리금융



기지 수첩

이 승 용
(금융부)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을 꿈꾸던 우리금융의 계획은 점점 수면 아래로 들어가고 있다.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해 증권사를 인수했고, 1조5000억원을 투자해 보험사 인수에 나섰다. 결국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한방으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최근 불거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악재로 금융당국 인허가 승인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징계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과 관련해 임 회장이 사전에 인지했

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지난 1~3월 자체 감사, 4월 자체 징계 과정에서 8월 9일 수사기관 고소 내용에 적시된 범죄 혐의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고 부당대출 건이 제때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이 명확하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올해까지 부당대출이 실행된 점과 우리은행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서 현 경영진의 책임론도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우리금융 현 경영진을 비판하면서 임 회장의 거취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현재 증권업에서는 집합투자업과 장내·외 파생상품 등과 관련한 라이선스, 보험업에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생보사의 자회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번 경영실태 평가에서 우리금융이 2등급을 받아야 하지

만 평가항목 중 내부통제 비중이 올해부터 높아지면서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다.

불과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증권·보험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을 꿈꿨지만, 정말 ‘한낱 꿈’이 되어 버렸다.

‘CEO 리스크’는 항상 신사업 진출 때마다 발목을 잡는다. 실제 카카오는 김범수 경영혁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으면서 카카오펙크의 마이데이터, 신용카드 등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키움증권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사태 연루로 지난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추진하지 못했다.

우리금융이 신사업 진출을 통해 종합금융사로 거듭나려면 조직 쇄신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더럽혀진 몸’에 새 옷을 입는다고 몸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lgy2665@

오늘의 운세 9월 11일 (음 8월 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떨어지는 낙엽에도 갖가지 사연은 있다. 48년생 행복과 불행은 자기 마음에 있다는데. 60년생 삶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 자신을. 72년생 바람이 불면 흔들리게 마련이니 날아가지는 말도록. 84년생 배 품에도 생각할 여유가 필요.



37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알아서 처신. 49년생 바보 같은 선택이었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61년생 많은 사람을 제치고 지도자가 되니 조심적이다. 73년생 종로에서 뽕맞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한다. 85년생 말조심 불이익당할 수.



38년생 행복을 꿈꾸는 것이 원대한 것은 아니다. 50년생 자신이 옳다고 믿어도 오늘은 침묵. 62년생 호랑이 날이니 호랑이띠와 거래는 불편할 수가. 74년생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리도록 욕심은 끝이 없다. 86년생 돈 자랑하다 깨질 수도.



39년생 옛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는다. 51년생 삶의 질은 온전히 나의 선택으로 결정됨. 63년생 희망이 있다면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75년생 화목의 해결책은 한 발 양보와 타협이지 않을까. 87년생 고집이 마음 아프게 할 수도.



40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52년생 멍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 64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는 걸 인식. 76년생 설마하는 마음을 갖고 천천히 움직이자. 88년생 계약 건이 원만히 계약.



41년생 감정절제를 잘해야 일이 성사. 53년생 친구와 여자로 인한 경쟁 할 듯. 65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써보자. 77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는 낭패를 본다. 89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42년생 자기 기도에 의미를 달기보다는 실행해보시라. 54년생 자식 자랑도 자리를 봐가며 해야 한다. 66년생 승진운이 있으니 등회기친 하도록. 78년생 직장에서 행운을 가져오니 힘내자. 90년생 내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할 여유가 필요.



43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과 행동을 조심. 55년생 굴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라. 67년생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으니. 79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사. 91년생 새벽부터 종일 질서를 지켜가면서 운전.



44년생 가정의 화목에서 행복이 시작. 56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은 일. 68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쓰면 된다. 80년생 불평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92년생 조직에서 일한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45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57년생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보면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 69년생 한번은 참으면 열음이 편하다. 81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식사 때 대화에 주의. 93년생 생각지 못한 수익이 생기니 기쁜 날.



46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나에게 유리한 날. 58년생 호랑이띠 용띠와의 거래가 순조롭다. 70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건강에 신경 쓰자. 82년생 남에게 베풀려는 어려운 얘기는 차후에 내게 이득. 94년생 꿈이 현실이 되니 포기 말라.



47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59년생 인생의 좌표를 한번 손질해야 할 시기가 왔으니 점검. 71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으니 피해야 한다. 83년생 지나간 인연이 다시 찾아오니 혼란. 95년생 돈이 들지 않는 기도가 쉬운 일은 아니다.

김상회의四季

보은(報恩)과 역사 ②



“가서 내용을 고치고 오든지 거기서 죽든지” 불같은 선조의 명령에 겁을 먹으며 역관들은 돈을 모아 그의 횡령액을 채워주었고 그는 역관으로 합류했다. 이들이 산하이관(山海關)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명나라 병사가 조선 사신들이라고 하자 “그럼 혹시 흥씨 성을 가진 역관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흥순언은 “내가 흥씨”라고 대답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병사는 딱히 대답이 없었고 다시 길을 떠나 대도로 향하는데 대도 성문 밖에서 병사들이 일행 중 흥씨 역관을 모시러 왔다며 맞이할 준비를 했다. 곧 한 남자가 다가오는데 그중 여성은 바로 그가 돈을 주었던 류씨였다. 그녀는 “그때 주신 돈으로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 장례를 치렀고 부친의 지인들께 인사를 다니던 중 원래 친분이 있던 석씨 집안에 인사를 갔다가 지금 남편인 석성(石星)을 만나 혼인했다”라며 남편을 소개했다. 석성은 “결혼 후부터 아내에게 계속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런 시대에도 아직 이런 의인이 있다는 걸 깨닫고 꼭 만나 뵙고 싶었다”고 했다. 이들 일행은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석성은 지금의 교육 및 외교부 차관급에 해당하는 예부시랑의 높은 관직에 있었고 흥순언이 그간의 종계변무 문제를 석성에게 말했다. 일주일 만에 명서(明書) 개정판뿐만 아니라 일행이 갖고 귀국할 사본 한 질까지 제작되었다. 애당초 명나라의 국가 기록물 관리 자체를 예부에서 관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석성에게 권한이 있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흥순언과 일행은 의기양양하게 귀국했고 선조는 150년 묵은 문제를 해결하니 크게 치하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석성이 수레 한가득 싣려 보낸 비단이 도착해 있었다. 여기에 ‘보은(報恩)’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류(柳)씨가 한 수 한 수 정성껏 수를 놓은 것이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1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1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4			7
4						8
			3			
				7		9
6	3				8	4
1	8					
		3				
4						5
5		9	1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2	7	2	1	6	8	9
1	9	8	9	8	2	6	7
2	6	8	9	7	8	1	9
8	2	9	6	9	7	8	1
7	8	1	2	9	6	8	9
6	9	2	8	8	1	7	9
9	7	9	8	6	2	1	8
8	8	2	1	2	9	9	7
2	1	6	7	9	8	9	2

2	9			5	9	1
1	2					9
7				2		5
3	7		8			5
2	6	5				



던킨 30주년 '원더스' 론칭 "놀라운 맛 선사" L1



Life

K-미용기기 돌풍 글로벌 뷰티시장 수출 괄목상대 L2



개울가 옆 황금빛 논두렁 따라 근심없는 마을서 가을 느껴볼까

서울 도봉구에는 '도시 속 시골'로 불리는 '무수골(無愁골)'이 있다. 세종의 17번째 아들 영해군(1435~1477)의 묘를 조성하면서 생긴 마을로, 550년 가까운 역사를 지녔다. 마을명은 영해군의 묘를 찾은 세종이 약수터에서 목을 축인 뒤 '물 좋고 풍광이 좋아 아무런 근심이 없는 곳'이라 한 데서 유래했다. 대전 중구, 상주 모동면, 영동 양산면 등 전국 각지에 무수골이라는 지명이 붙은 곳이 존재한다. 서울역사편찬원의 '서울 지명사전'에 따르면, 골짜기나 산 밑에 있는 마을 중 물이 많은 곳에 '무수골'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 ① 지난 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윗무수골 일대를 찾았다.
- ② 시민들이 나무가 우거진 윗무수골 일대를 산책하고 있다.
- ③ 윗무수골을 찾은 시민들이 계곡에서 발을 담그며 물놀이 즐기고 있다.
- ④ 북한산 자락에 남은 유일한 농경지인 무수골 논체험장에 심어진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다. /김현정 기자

되살아나는 서울 ⑩ 도봉구 '윗무수골'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곳

지난 7일 오후 무수골을 찾았다. 지하철 1호선 도봉역 2번 출구로 나왔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 탄 도봉08번 마을버스에서 신기한 경험을 했다. 버스에 타는 사람, 내리는 사람, 모두가 떠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말을 거는 장면을 목격할 것이다. 버스에 오르는 사람은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했다. 버스 기사는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반대편에서 기다리면 안 돼요. 버스 안 가요"라는 등의 말을 건넸다.

마을버스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다. 어르신들은 "상전이 와서 장을 많이 봤다", "자식이 왜 상전이나", "눈치 보이면 상전이 지", "가는 날이 장날이다", "추석이 왜 장날이나, 축제지" 하는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깔깔거렸다. 대화 내용이 흥미로워서 귀에 쫓은 이어폰을 빼고 말소리를 엿들었다.

버스 안 분위기가 오순도순 화기에 애했던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노인이 버스에 오르면 재빨리 자리를 양보했고, 어르신들은 "아유 참. 고마워요"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세종의 아들 영해군 묘 조성하며 생긴 마을 물 좋고 풍광 좋아 '무수골'이란 이름 붙어

화기에 애한 마을주민들 분위기에 '힐링' 나무 우거진 만세교, 사진찍기 좋은 명소 사계절 자연정취 느낄 수 있는 농경지도

30년 넘게 서울에 살면서 대중교통을 수없이 많이 이용해왔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이토록 진하게 풍겨오는 마을버스를 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훈훈한 광경을 눈에 남긴 뒤 종점에서 하차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아직 가을에 자리를 내줄 준비가 되지 않은 숲은 짙은 녹음을 드리웠고, 미세먼지가 한 톨 없는 청명한 하늘은 푸르름을 뽐냈다. 눈이 시리게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매미 우는 소리, 풀벌레 노랫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서 만나는 벼의 황금빛 물결

무수골은 윗밭, 중간밭, 아랫밭 세 개로 나뉜다. 국립공원에 포함돼 개발 광풍을 피해 간 윗무수골로 발걸음을 옮겼다. 신라 고찰 원통사 밑에서 발원한 계곡 물줄기를 하류에서부터 따라 올라갔다.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물

속 생명체들을 잡는 데 열을 올렸다. 차양 모자를 꼭 눌러 쓴 어른들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했다. 물놀이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길을 걷다 보면 성신여자대학교 난향별원이 나온다. 넓은 정원과 2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학생 단체의 합숙 훈련 장소라고 하는데, 잡풀이 우거져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난향별원에서 만세교로 진입하는 길목은 농촌선 안 될 사진 명소다. 나무가 우거져 그늘진 공간 뒤로, 쪽뽕은 평야 위에 햇빛이 쏟아져 한 폭의 명화를 그대로 베껴놓은 듯했다. 이곳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면 현실 세계에서 판타지 세상으로 가는 천국의 문이 켜진 것처럼 보인다.

영국 작가 루이스 캐럴의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굴 같은 길을 지나면 광활한 논이 펼쳐진다. 이곳에선 푸르푸룩한 벼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무지개 논 입구에 박힌 나무 팻말에는 "도봉산 윗무수골은 북한산 자락에 남은 유일한 농경지로, 봄에는 어린 모, 여름엔 파릇파릇 자라는 벼, 가을에는 황금 물결, 겨울에는 눈 위에 찍힌 고라니 발자국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며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자연의 지혜를 배워보자"는 말이 쓰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손준호 中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K리그도 못뛰나
▲'안세영 사태' 배드민턴협회 민낯 드러나 /사진 뉴시스

▲MLB최초 50-50 노리는 오타니, 4홀런 3도루 남았다
▲김민재 "붉은악마에 인사거부 제행동 잘못" /사진 뉴시스



▲KPGA 메이저 우승 유현조, 세계 172위에서 86위로 점프
▲한국 농구, 이란 꺾고 U-18 아시아컵 5위 /사진 뉴시스